

2026년 봄호 vol.182

이화 동창

2026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모교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행사 소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김은미 동창
이화인 모임 탐방-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7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7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원-2026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9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원-2026년 기준 만 60세 미만(1990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이명경 이대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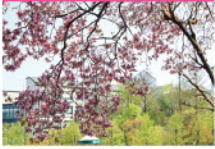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이화 동창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보라빛 도톰한 꽃을 피워 해마다 봄소식을 전하는 대강당 옆 자목련(2021)

이 나무는 이화여자전문학교 시절 영문과 교수로 교편을 잡은 박은혜 선생의 기증으로 이화에 오게 됐다. 평소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박은혜 선생은 영국에 갔다가 조그마한 화분에 심긴 자목련 묘목을 안고 귀국했다. 박은혜 선생의 어린 아들이 부쩍 클 때까지 제기동 집 앞마당에서 한동안 자라던 자목련 나무는 1963년 박은혜 선생이 생을 마감한 이후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돌볼 주인이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어머니께서 애지중지 아끼시던 나무를 그냥 버릴 수 없었던 아들들은 고민 끝에 이화여대에 자목련 나무를 기증해, 1971년 대강당 옆으로 옮겨졌다. 출처:이화여대 블로그

편집위원

-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 한은주(특고 79, 총동창회 부회장)
- 곽은이(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 김경령(수화 84, 총동창회 총무)
- 최정은(커미부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이영희(사화 88, 편집위원)
-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 최지영(사화 89, 편집위원)

발행 2026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케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 03 2026년도 정기총회
모교 창립 140주년,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비적 해를 맞다
- 06 2026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새내기 이화 동창의 입회를 축하하며
- 08 총동창회장 인사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09 2026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더 넓고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점
- 10 2026년도 신입 동창 답사
나의 길을 정할 때 오직 스스로 확신에 따를 수 있게 해준 이화
- 11 2026년도 사업계획안
- 12 이화인 모임 탐방/이대시대동창회합창단
이화에서의 시간과 우정, 노래로 다시 이어지다
- 16 만나고 싶습니다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김은미 동창
- 20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식탁 위의 예술가 이귀연 동창
- 24 선교지에서 온 편지
25년 만에 가진 안식월
- 26 총동창회 소식
2026년 첫 정기임원회 열려, 합창 페스티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고받아 외
- 29 선교부 소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은 겨울 수련회
- 30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행사
- 31 모교 소식 창립 140주년 맞아 '새 시대, 새 이화' 향한 도약 시동의
- 35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합니다
- 36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 39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 49 지회 소식 뉴욕 지회 외
- 59 동창 근황 고이혜숙 동창 외
- 71 동창이 펴낸 새 책 『그래도 못다한 말』 외



02



06



13



16



20



28



33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편 16:11)

사랑하는 하나님,
대강당을 가득 메운 3,000여 명의 새벽이슬 같은 이화의 새내기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앞에 사랑으로 잇대어 놓으신 새 생명의 길 밝히 보게 하시고
이미도 베풀어 놓으신 기쁨으로 찰나를 깨워 들숨과 날숨 쉬면서
당신 곁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나누어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 새내기들이 '이화 동산'에서 그 꿈 펼쳐 나가는 길에 당신만이 누리가 되셔서
저들 마음에 고이 접혀 있던 바랜 자락 꺼내어 평안으로 든든히 동여 주시고
저들 안에 깊숙이 개켜 있던 바랜 옷 펼쳐 평강으로 켜켜이 입혀 주시면서
'이화'를 향하신 당신의 바람 좇아 부지중이라도 진실하게 바른 걸음 딛게 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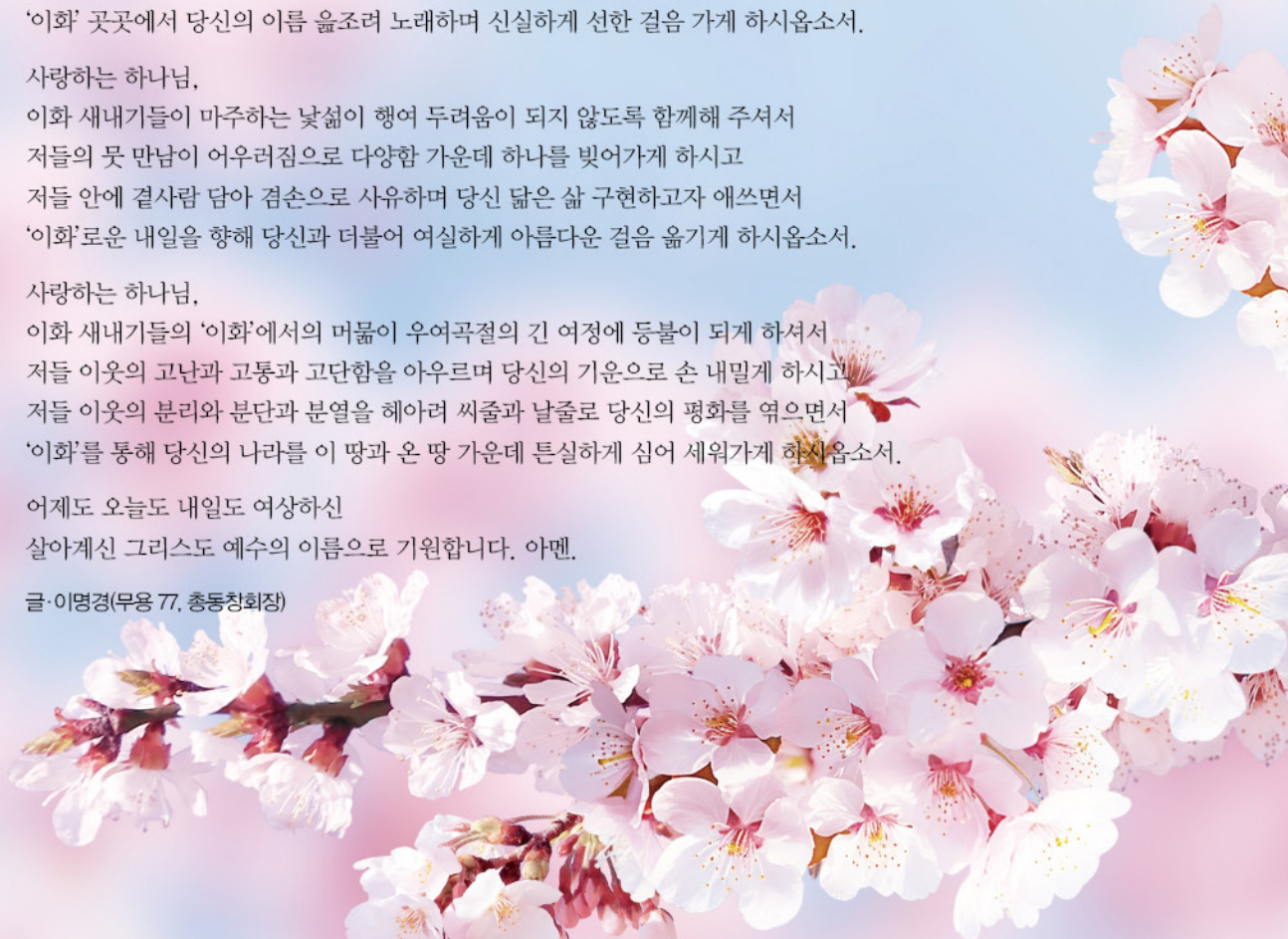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 새내기들의 서툰 일상의 분주함과 이런저런 속내의 소리를 잠재우셔서
저들로 머뭇거리며 오직 내어 주시는 당신의 음성에 고요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그 소원 만져 가시는 당신의 이끄시는 손길에 시선을 두면서
'이화' 곳곳에서 당신의 이름 읊조려 노래하며 신실하게 선한 걸음 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 새내기들이 마주하는 낯섦이 행여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못 만남이 어우러짐으로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빚어가게 하시고
저들 안에 결사람 담아 겸손으로 사유하며 당신 닮은 삶 구현하고자 애쓰면서
'이화'로운 내일을 향해 당신과 더불어 여실하게 아름다운 걸음 옮기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 새내기들의 '이화'에서의 머뭇이 우여곡절의 긴 여정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저들 이웃의 고난과 고통과 고단함을 아우르며 당신의 기운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저들 이웃의 분리와 분단과 분열을 헤아려 씨줄과 날줄로 당신의 평화를 엮으면서
'이화'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과 온 땅 가운데 든실하게 심어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상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모교 창립 140주년,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비적 해를 맞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3월 14일(토) 오전 11시 30분 동창회관 1층 Main Hall(이화·삼성교육문화관 103호)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향숙(수학 86) 모교 총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이경숙(영문 70)·김영주(유교 71)·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 고문,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들과 박상연(경영 88) 학사부총장, 최윤정(영문 96) 대외협력처장 등 모교 관계자를 비롯해 2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김정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개회사와 전년도 회의록 낭독, 2025 회계연도 감사와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모교 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행사 적극 참여 당부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 동산에 연둣빛 새순들이 아름다운 생명의 절기에, 신입 동창을 환영하고, 총회를 위해 귀한 걸음한 선후배 동창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2026년은 모교가 140주년, 총동창회는 118주년을 맞는 해이자, 제19대 총동창회가 마지막 임기를 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취임 당시 “선후배 동창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중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모교와 적극적인 도움과 나눔으로 연합하여 공공선을 구현해 가겠다”고 가졌던 소망을 되돌아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넉넉한 사랑으로 함께한 선후배 동창들 덕분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앞으로 이어질 총동창회와 모교의 행사에도 기도로 마음 모아 응원하면서, 하나님 가리키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 주

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희(사교 83) 서기가 2025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정승은(간호 86) 동창의 동의와 황복기(화학 83)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이정화(독문 74) 감사는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결산서와 제 증빙서류를 감사한 바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했다. 또 김경령 총무가 2025년도 사업 보고를, 이여훈(경영 05) 회계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했으며, 강명옥(영문 82) 동창의 동의와 윤금진(영교 80) 동창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2026년 사업계획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최은영(물리 87) 동창의 동의와 이주연(교육 91) 동창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참석한 동창들은 식전에 상영된 총동창회 주요 활동 영상과 당일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며 관심 있게 살펴봤으며, 박수로 원안을 승인했다.

총동창회 회칙 개정안 발표

다음으로 노정희(법학 86, 법대·법전문 동창회장) 회칙개정위원장이 회칙 개정안 추진 경과와 수정 내용을 설명한 뒤 인준 절차를 진행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정기임원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곽은아 부회장, 이경숙·남상택 고문, 노정희 법대·법

이경숙·김영주·남상택 고문, 한은주 부회장(왼쪽부터)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향숙 총장

전원 회장, 피상순(의학 84) 의과대학 회장, 이은영(컴공 85) 인공지능대학 회장, 최희경·박귀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10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정기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책자 9~11쪽의 회칙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칙 목적에 ‘사회 공헌’을 명시하고, 사무소 규정을 조정해 유연성을 확보했으며, 임원회 구성과 고문의 연임 제한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회장단 선임 절차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선임 절차 관련 규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장 유고 시의 규정을 정비했다. 수정안에 대해 고문의 임기와 연임 제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노 위원장은 자문 역할의 특성을 고려해 회장단과 임기를 엇갈리게 하는 현재의 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회칙 개정안은 한미경(물리 88) 동창의 동의와 임복희(행정 93) 동창의 재청을 받고 참석자들의 박수로 가결되었다.

이향숙 모교 총장, 창립 140주년 기념 행사 등 소식 전해

다음으로 이향숙 모교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먼저 이 총장은 “27만 동창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과 지지가 이화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고 있



노정희 회장(왼쪽부터)이정화 감사, 김경령 총무, 황인희 서기, 이여훈 회계사 사회 및 보고자로 참석했다

다”고 하며 동창의 든든한 역할에 깊은 감사를 전한 뒤, 취임 이후 수립한 비전과 전략 아래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이 총장은 국가 대형 연구 사업(국가연구소 사업 NRL 선정, 2025 대학 기초연구소 지원사업 G-LAMP 공학 분야 선정,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인공지능 분야 선정)을 수주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큰 기반이 됐다고 알렸으며, 대학 평가와 교육 부분 등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또한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이화 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해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1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키 비주얼을 화면으로 소개해 참석한 동창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요 행사로 ‘창립 기념식’, ‘KBS 열린음악회’, ‘백남준 특별 전시

회’, ‘이화, 함께 건다’, ‘140주년 기념 전시’, ‘14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이화가족 찾기’, ‘글로벌 홈 커밍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고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학 발전을 위한 1,400억 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동창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격려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교가 제창을 하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폐회를 선언한 뒤 2026년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모교에서는 티코스터 세트들, 총동창회에서는 샌드위치 세트를 동창들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동창들은 1층 황화방과 동창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샌드위치 도시락을 함께하며 모교 창립 140주년을 맞아 예정된 행사 일정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창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새내기 이화 동창의 입회를 축하하며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새내기들

정기총회에 앞서 신입 동창 환영회가 3월 14일(토) 오전 11시 동창회관 1층 Main Hall(이화·삼성교육 문화관 103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2026년 2월 졸업한 3,787명이 총동창회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승애(체육 95)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회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를 부르며 시작됐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이화가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으며 사회를 선도하는 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도했다.

조선영 선교부장, 구미리 경영대 회장, 최이경 신입 동창(왼쪽부터)



선배의 환영사, 후배의 답사가 이어진 정겨운 자리

구미리(경영 85) 경영대 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이화인은 세계 곳곳 각계각층의 자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선배 동창들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고, 때로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고 응원을 전했다.

구미리 회장은 미국 듀크대학 재직 중에 발견한 자료를 소개하며, 1930년대 이화여대가 듀크대학 앨리스 볼드윈 학장에게 보낸 서신과 그 속에 실려 있었던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이 부른 Class Song의 노랫말을 인용했다. “Happily and willingly to the center of the big sea, Happily and willingly we pass on to the sea of hope”라는 구절을 통해, “기쁘고도 기꺼이 희망찬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며 신입 동창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신입 동창 대표로 답사에 나선 최이경(컴공 26)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정 빈 동창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증서를 받은 신입 동창들(가운데 기립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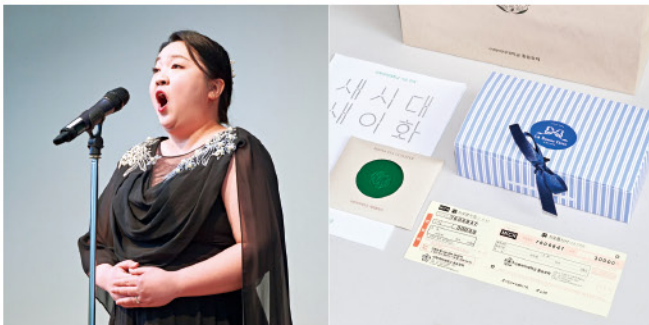
동창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어 감사하다”는 말로 답사를 시작했다. 교수의 꿈을 안고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로 박사과정에 진학한다는 최이경 동창은 전공 분야가 모교 연구실을 제외하고는 여성 연구자를 찾기 힘든 곳이라고 하면서, “이화는 남성 주류의 사회적 통념을 넘어 오직 자신의 의지와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대학보》를 통해 이화 DNA를 공유하는 선배들이 앞서 개척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고 하며, 선배들처럼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새롭게 입회하는 신입 동창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박재은 교수의 축하공연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기념품



신입 동창 50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다음으로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총동창회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 동창 25명과 재학생 25명 등 총 5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학원에 진학한 신입 동창 25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학과와 이름이 호명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이어 신입 동창 대표로 정 빈(서양 26) 동창이 단상에 올라 이명경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이화 동창의 가족이 된 신입 동창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이어 박재은(성악 10) 모교 성악과 교수가 조예원(대학원 17) 동창의 반주로 <꽃잎 인연>(도중환 시, 김 홍 곡)을 선사했다. 따스한 봄기운 속 꽃망울이 맺히는 이 계절의 정취를 담은 이 곡은, 설렘 속에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 동창들에게 싱그러움 봄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행사는 선후배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신입 동창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가운데, 이화 공동체의 연대와 응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경(무용 77, 제19대 총동창회장)

이화 동산의 연둣빛 새순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명의 절기에, 사랑하는 신입 동창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총회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자 귀한 걸음해 주신 모교의 이향숙 총장님과 박성연(경영 88) 학사부총장님, 최윤정(영문 95) 대외협력처장님 그리고 총동창회의 이경숙·김영주·남상택 고문님들과 임원들, 선후배 동창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 2026년은 모교가 140세가 되고 총동창회는 118세가 되며, 또한 제19대 총동창회는 마지막 임기를 갈무리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는 2023년에 제19대 총동창회장으로서의 직임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땅 여성들의 아픔에 응답하셔서 모교 ‘이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후배 동창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교와는 지속적으로 상생과 공생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적극적 도움과 나눔으로 연합하여 공공선을 구현해 가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소망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구약성서 전도서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으며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지혜자의 권면이

있습니다.

고비 고비의 찰나들도 있었지만, 때마다 일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손 모아 주신 선후배 동창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총회를 마치고 나면 총동창회에서는,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3일(목))’를 시작으로,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찬양예배(5월 11일(월))’와 ‘합창 페스티벌(5월 28일(목))’ 그리고 ‘동창의 날(5월 29일(금))’ 등 상반기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교에서도 창립 140주년을 맞이해서, 이화의 구성원들이 각 영역에서 ‘섬김과 나눔’을 근간으로 전문성을 담보한 창조적 방안을 모색하고 연계하여 다양하고 역동적인 행사들을 준비 중입니다. 이 또한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고, 5월 29일(금) 거행되는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행사에도 선후배 동창 여러분이 가득 자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의 걸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응원 하시면서 힘 되어 주시고 하나님 가리키시는 그곳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 주시길 선후배 동창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넓고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점



구미리(경영 85, 경영대학 동창회장)

올해 새롭게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신입 동창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저에게도 처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 신입 동창이 된 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여 년간 미국의 듀크대학(Duke University)에서 한국학 발전을 위해 일하다가 귀국한 후, 저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준 곳이 바로 이대 동창회였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20대에 거닐던 교정으로 돌아온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신입 동창 여러분과 저는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듀크대학 아카이브에서 1930년대 이화 여대가 듀크대학의 Alice Baldwin 학장에게 보낸 서신과 자료들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1937년 11월호 《The Ewha College Girl》에는 당시 학교장이셨던 앨리스 아펜젤러(Alice Appenzeller) 선생님께서 한국 이화칼리지에서 20여 년간 교육자로 헌신한 공로로 그해 6월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400여 명의 이화인이 채플 강당에 모여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료 속에는 당시 학생들이 불렀던 Class Song의 일부도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노랫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힘찬 샘물이 바위를 뚫고 솟아나 계곡과 산비탈을 따라 기세 좋게 흘러갑니다. 푸른 하늘을 비추며 그 샘물은 길을 이어가 기쁘고도 기꺼이 넓은 바다의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맑은 샘물처럼 우리의 정신도 하늘을 향해 치솟고,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련을 이겨낸 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고도 기꺼이 희망의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이화 교정에서 보낸 4년은, 앞으로 더 넓고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듀크대학 아카이브의 기록들 속에 묘사된 이화의 아름다운 교정, 총명한 학생들, 그리고 봉사와 나눔, 끊임없는 배움의 정신은 오늘의 이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140년의 세월 동안에도 이화의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학교장이셨던 앨리스 아펜젤러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를 길러내는 대학을 꿈꾸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여성들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에 유익한 인재로 성장하고,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헌신의 씨앗은 세대를 넘어 오늘의 이화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정신을 이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이화인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배 동창들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고, 때로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입 동창과 선배 동창이 서로를 이어주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1930년대 이화의 학생들이 불렀던 노랫말처럼.

Happily and willingly to the center of the big sea. Happily and willingly we pass on to the sea of hope.

기쁘고도 기꺼이, 넓고 희망찬 바다를 향해 나아가실 여러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도 신입 동창 답사

나의 길을 정할 때 오직 스스로 확신에 따를 수 있게 해준 이화



최이경(김공 26)

202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엘텍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최이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화 선배님들 앞에서 신입 동창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전하게 된 이 순간이 참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3월을 맞이하니, 설렘 가득했던 첫 개강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실 입학 당시의 저는 대학 생활에 대한 낭만보다는, 오직 꿈을 위한 과정으로서 학업에만 몰두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의 따뜻한 포용력과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정신은 저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어느덧 저는 다양한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며 누구보다 뜨겁고 알찬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 첫 단계로 오는 9월 미국에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하드웨어 분야는 컴퓨터공학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약 5.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국내외 학회에 참석해 보면 제가 속한 이화여대 연구실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제가 진학할 미국의 연구실 또한 여성이 지뿐인 환경입니다.

만약 제가 이화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공부했다면, 남성 주류인 이 분야를 보고 은연중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화는 저에게 사회의 분위기와 통념을 떠나, 오직 나의 의지와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의 길을 정할 때 오직 스스로 확신에 따를 수 있게 해 준 이화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공 공부가 어렵고 지치는 날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선배님들의 존재였습니다. 《이대학보》를 통해 사회와 학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선배님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치 저의 일처럼 가슴이 뛰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이화 DNA를 공유하는 선배님들이 앞서 개척하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10년, 20년 뒤에 선배님들처럼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저에게 멈추지 않는 동력을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닦아 놓으신 이 빛나는 길을 따라, 저

또한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할 수 있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이자, 한 명의 이화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신입 동창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모든 이화인의 앞날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답사를 마칩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3.1~2027.2.28



- 1 2026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14일(토)
- 2 2026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4월 11일(토)
- 3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3일(목)
- 4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11일(월)
- 5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합창 페스티벌-5월 28일(목)
- 6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29일(금)
 - 기념식-제11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 졸업 50주년(1976년 졸업)·졸업 30주년(1996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영원한 이화인' 추대 ■ '올해의 이화인' 추대 ■ 합창제
- 7 2026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6월 또는 9월 예정
- 8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9월 15일(화)
- 9 제1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9월 19일(토)
- 10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10월 29일(목)~11월 1일(일), 애틀랜타 지회 주최
- 11 2026 이화인의 밤-11월 30일(월)
 - 제19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 12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3일(목)
- 13 정기임원회-매달 두 번째 목요일
- 14 동창회보 《이화동창》 182호~185호 발간-3, 6, 9, 12월
- 15 총동창회 산하 '이울연합회' 5주년 기념행사-10월 21일(수)
- 16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 17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자 예우 및 납부 독려-연중
- 18 후원이사 예우 및 신규 후원이사 모집-연중
- 19 모교 지원 사업-연중
 - 모교 발전기금, 재학생 장학금 모금
 -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학생군사교육단 임관 및 입단식 등
- 20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 21 황화방 운영-연중
- 22 기타

이화에서의 시간과 우정, 노래로 다시 이어지다

서울 방배동의 한 교회 연습실. 저녁이 되자 삼삼오오 모인 단원들이 자리를 채운다. 연습 시작 전, 몇몇 임원들은 김밥과 따뜻한 보이차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날 모인 인원은 30명 남짓.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목을 풀고 화음을 맞추는 이들은 바로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이다.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무장

현재 합창단은 동창의 날 전날인 5월 28일(목) 총동창회 주최로 개최되는 '합창 페스티벌' 준비에 한창이다. 모교 창립 140주년,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고 동창 합창단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대규모 행사로, 참가 팀만도 12개 팀에 이른다.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은 단원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교직에 몸담았던 동창들이기에 모범적인 책임감과 근면함으로 연습만큼은 빠지지 않으려는 열정이 남다르다.

지휘를 맡고 있는 김주연(중음 88) 동창은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은 성실하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강한 팀"이라며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합창을 넘어 연습하는 즐거움과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은 곡의 메시지



한자리에 모인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 전·현직 임원들 (왼쪽부터) 명경미·강월석·이영옥·이미옥·윤금진·신정혜·김주연 동창

를 살린 간단한 안무를 더해 무대를 하나의 공연처럼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동창은 "단원들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신선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한다.

영어교육과 50주년 동창의 밤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의 현재 모습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25일, ECC 이삼봉홀에서 열렸던 '영어교육과 50주년 기념 동창회 밤' 행사에서 축하 공연으로 모였던 27명의 동창들이 그 출발이었다.

자타공인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 재창단의 장본인인 이미옥(영교 79, 초대 합창단장) 동창은 "당시 3~4개월 정도 연습해 공연을 올렸는데 반

응이 너무 좋았다”며 “그때 합창을 계기로 당시 총동창회장 김영주(유교 71) 선배님을 비롯해 여러 동창으로부터 사범대 전체 동창 합창단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회상한다.

당시 공연 곡 중 하나였던 〈Non Ho L'eta(나이기도 어린데)〉는 지금도 단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다. 강월석(영교 76, 전 영교과 회장) 동창은 “그때 제 나이가 61세였는데 ‘나이기도 어린데’라는 노래를 부르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어린(?) 나이였죠.”(일동 웃음)

동창의 날 합창제 강팀으로 부상

이 공연을 계기로 합창단은 본격적으로 재창단 되었고, 2015년 이화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처음 대강당 무대에 올랐다. 파란색 드레스에 붉은 코르사주를 단 단원들은 이수인의 〈사랑의 노래〉를 선보이며 1등상인 ‘이화상’을 수상했다.

그때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엄한 화음의 〈주기도문〉으로 3등상을, 2017년에는 몽환적인 화성을 잘 살린 〈The Ground〉로 대상을, 2018년에는 웅장한 하모니를 표현한 하이든의 〈천지창조 13번〉으로 최고상을, 2019년에는 새롭게 영입한 김주연 지휘자의 지도 아래 절도 있는 울동으로 인상적 무대 매너를 보여준 〈주를 양모하는 자〉로 대상을 수상하며 합창제 강팀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던 합창제가 재개되면서 2024년, 2025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공연의 감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이 새롭게 출발한 2015년 이후로는 외부 활동도 많아졌다. 교육학과 안



총동창회 주최 동창의 날 합창제 공연 모습. 위부터 2025년, 2024년, 2015년 공연

인희 명예교수 출판기념회 축하 공연, 사범대학 초대 학장을 지낸 고 김애마 선생님의 19, 20기 추도예배 특송, 이화여대 교원교육 100주년 기념식 축하 공연, 이화가족 성탄예배 특송, 그리고 하늘숲추모공원에서 있었던 고 김애마 선생님의 이장 예배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합창단 재창단 초기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단원들은 2018년까지 지휘자를 맡았던 이명옥(영교 78) 동창을 꼽는다. 이명옥(영교 78, 2대 합창단

장) 동창은 “이명옥 지휘자가 무보수 재능기부로 4년 동안 합창단의 기틀을 닦아 주었다”며 “동창 합창단이지만 때로는 프로 합창단처럼 학구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명옥 동창도 “42명의 단원이 한목소리로 훌륭한 실력을 선보여 첫 대강당 무대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명옥 동창의 공이 크다”고 회고했다.

합창단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노력

합창단 운영은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원 확보와 운영비 마련이다.

한때 합창단은 대관료와 지휘자·반주자 사례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원들이 사비를 모아 운영하기도 했다. 이명옥 동창은 “이렇게 해서는 지속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사범대 동창회장 신경희(수교 77) 선배에게 기업체 대표 선배들에게 후원을 받아고 제안했더니 선뜻 거금의 후원금을 내놓으셨다”며 “덕분에 1년간 합창단을 꾸릴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 후 “사범대 동창회 산하에 합창단을 두고, 동창회장이 당연직 합창단장을 맡도록 정관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 덕분에 합창단은 사범대 동창회 안에서 공식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현재는 각 학과 동창회와 단원들의 회비가 합창단 운영의 기반이 된다. 신정혜(영교 90, 합창단 총무) 동창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총무로서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덜었지만 각 학과 동창회장들과 자주 대면하면서 기금을 취합해야 하는 사범대 동창회장님의 역할이 아무래도 더 버거워졌다”고 덧붙인다.

“회장이 힘들긴 해요(웃음)”라고 입을 연 윤금진



(위)영어교육과 50주년 기념 동창의 밤(2014.9.25)

(아래)이화 교원교육 10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축하무대

(영교 80, 현 사범대 동창회장이자 합창단장) 동창은 “기금이 쌓이는 구조라기보다는 매년 합창제를 준비하는 3~5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연습 장소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 등을 어렵게 섭외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 서초동의 한 교회에서 연습하던 시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다. 교회 규정상 장기 대관이 어려웠는데, 이를 모르고 코로나가 끝난 뒤 하루라도 빨리 연습 일정을 잡고 싶어 교회 사무실에 직접 문의했다가 장소 대관을 섭외해준 후배를 곤란하게 만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원들은 “합창단을 유지하는데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숨어 있다”며 웃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의 자랑은 무엇보다 단원들의 열정이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연습에 참여하는 동창도 있고, 수원에서 대중교통을 세 번이나 갈아타고 오는 동창도 있다.

윤금진 동창은 “알토 파트의 윤혜화(영교 80) 동창은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연습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며 “그에게는 합창이 삶의 충전이자 회복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창단 회계를 맡고 있는 명경미(특교 82) 동창 역시 정년퇴직 후 선배의 권유로 합창단에 합류했다. 그는 “합창단 활동 덕분에 삶에 활력이 생겼다”며 “연습을 위해 집에서도 음악을 틀어 놓고 따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밝아진다”고 말했다.

강월석 동창도 “합창을 할수록 행복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창 시절엔 미처 몰랐던 사범대 10개 학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새삼 깊어진다”며 “그중에서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합창단의 활동은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12~15번 정도 연습하고 무대에 오른다. 명경미 동창은 “학과 총회에서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후배들을 설득한다며 “정 못하면 입만 뻥긋해도 된다”는 농담도 덧붙인다고 한다.(웃음)

신정혜 동창은 “우리 지휘자님은 3시간 연습 내내 단 1분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음악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열정 덕분에 우리도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연 동창은 “합창은 무엇보다 즐거

워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대사대동창회합창단만의 밝고 활기찬 색깔을 살리면서 관객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합창 무대를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지휘자로서의 철학을 전했다.

노래로 이어지는 모교와의 인연

단원들이 합창단 활동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연결감’이다. 강월석 동창은 “학교를 졸업하면 모교와의 인연이 점점 멀어지기 마련인데, 합창단 덕분에 이화와 계속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화인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합창단의 고민은 후배 단원 확보다. 1990년대 졸업생이 막내일 정도로 세대 간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합창은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라며 후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윤금진 동창은 “사범대생들은 학교 다닐 때도 성실하기로 유명했잖아요”라며 웃었다. “합창단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남은 연습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이번 무대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연습실에는 이번 합창 페스티벌의 참가곡인 재즈풍의 가스펠 〈Swingin' With the Saints〉의 피아노 반주가 흐른다.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단원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스윙 특유의 당김음과 밝고 경쾌한 리듬이 울려 퍼진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동창들이 노래로 다시 만나 만드는 화음. 그 속에는 이화의 시간과 우정,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청춘이 담겨 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약 수사의 설록 홈스,
전 국과수 법과학부장 김은미 동창

과학으로 범죄를 밝히다



35년간 보이지 않는 증거를
통해 마약 사건을 밝혀 온
김은미 동창의 시간에는
과학자의 집요함과 깊은
시선이 담겨 있다



법과학자 김은미(약학 86, 약학박사,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과학부장) 동창은 1989년 국과수에 입사해 법과학 현장에서 외길을 걸어오다 35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난 2024년 6월 정년퇴임했다. 퇴임 후 제2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 국과수에서 걸어온 길과 경험을 들어봤다.

■ 마약 연구로 35년 : 국과수, 나만의 길을 선택하다

국과수는 드라마와 뉴스를 통해 이름은 익숙하지만, 범죄 현장을 다루는 조금은 '특수한 공간'인 듯 느껴지는 곳이다. 김 동창은 어떻게 이 '독특한' 직장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게 됐을까? “사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이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모습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또 석사 취득을 한 이후였기에 연구와 관련이 있는 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국과수였어요.”

이런 담백하고 소박한 선택이 35년 외길로 이어졌다니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라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행히 제 적성엔 잘 맞아서 꾸준히 한 우물을 팔 수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어떤 미지의 샘플이 왔을 때 실험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좁히고 좁혀가면서 숨어 있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적성에 맞았고, 그 결과가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걸 보면서 느끼는 보람이 상당히 컸어요. 또 실험 결과가 예상과 어긋나거나, 기대하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새로운 접근방법을 궁리하고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가듯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저에게 잘 맞았어요.”

국과수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흔히 '3D 업

중'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다루는 시료가 어렵고 (Difficult), 위험하며(Dangerous), 때로는 지저분하기(Dirty) 때문이라고. “현장에서 수거하는 시료는 대부분 미량이라 한 번의 실험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하수구나 쓰레기통 등 지저분한 곳이나 화재 현장처럼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도 증거물을 채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검할 때 다루는 생체시료가 비위에 맞지 않아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유로 국과수 업무를 특수분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휴일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비상대기로 일에 매달려야 하는 날도 많아요. 마약 투약의 양성·음성 분석에서 오류가 생기면 한 사람의 유무죄가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수해선 안 된다는 부담도 엄청 큼니다.”

그럼에도 김 동창은 “자신의 분석으로 사인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분석법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보람을 느끼죠”라며 그 보람이 긴 세월 외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이자 에너지였다고 했다.

■ 세계 최초로 모발 기반의 프로포폴 분석법 개발

김 동창은 마약분석과장으로 일하던 2013년, 세계 최초로 모발 분석에 의한 프로포폴 감정 기법을 개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2011년부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남용자들의 투약을 증명할 수 있는 분석법 확립이 시급해졌습니다. 기존에 소변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모발 분석 방법은 우리가 최초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었죠. 팀원들과 함께 바로 달려들어서 문헌을 찾고, 표준품을 구하고, 분석법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뮬레이션과 검증도 중요했어요. 혹여라도 분석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전혀 무관한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분석 방법과 함께 개발 과정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규명 작업이 학술연구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서 학계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시험법을 기술한 논문은 2013년 국제법독성학회(TIAF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Toxicologists)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마약 감정과 사회적 책임: 기억에 남는 사건을 돌아보며

담당했던 사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김 동창은 모 가수 겸 연기자의 마약 사건을 꼽았다. “제가 독성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사건이에요. 국과수 마약 양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 투약을 부인했고, 대다수의 언론매체가 그의 말을 믿고 국과수 감정 오류의 가능성을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국과수로 전화가 끊임없이 왔어요. 실험 방법의 정확도와 오류 가능성은 몇 퍼센트냐, 다른 시료랑 바뀐 것 아니냐 등등 국과수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품는 질문이 쇄도했죠.”

여론의 관심과 주목이 높았던 사건이라 언론 대응 과정에서 김 동창과 동료들이 느꼈던 긴장도 적지 않았다. “실제 검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스트레스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만큼 부담감이 컸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의 분석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20여 일 후에 결국 그가 마약 투약을 자백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국과수는 감정 능력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동창은 이 사건을 통해 마약은 몸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었



국과수에서 마약분석한 길을 걸어온 법과학자 김은미 동창

고, 과학적인 판단 하나가 개인의 인생, 조직의 신뢰, 사회 여론까지 모두 흔들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마약대응과 신설: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하여

퇴임을 4개월 앞둔 2024년 2월, 국과수 원주 본원에 마약대응과가 신설되었다. 김 동창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 독립 부서로 존재했던 마약과는 2013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약독물과(현 독성학과)로 통합되었다가 10여 년 만에 되살아난 거라고 한다. “마약과 신설은 2019년 제가 독성학과장이었던 때부터 동료들과 함께 노력해 온 일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마약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019년 강남 버닝썬 클럽 마약 사건 이후에는 하루에 400~500건씩 의뢰가 쏟아졌지만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버텨야 했어요. 독립된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 컨트롤 타워도 없는 상태여서 대응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료, 선배들과 함께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마약 확산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문제의식 등이 맞물리면서 결국 조직 신설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퇴직 직전에 그 결과를 직접 보고 나올 수 있어서 정말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동창은 단순히 의뢰된 마약 감정물만 처리하는 것으로는 마약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종 마약에 대응하는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마약 유통 경로와 향후 트렌드 예측, 늘어나는 감정물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마약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마약대응과 신설로 국과수 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마련할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에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약 남용자 치료를 위한 재활병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예방 교육도 필요하죠. 특히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교과과정에 마약 예방 교육을 도입해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직, 책임감, 연민 그리고 전문성

김 동창은 법과학자로 살아오면서 평생 마음에 새겨온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했다. 정직, 책임감 그리고 연민이다. “제 분석 결과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에 임할 때 항상 정직해야 하고, 자신의 분석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연민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범죄와 그 증거를 다루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범죄는 단죄해야 하지만 사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요. 저에게 연민은 범죄자를 감싸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저 스스로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었

어요.”

김 동창은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꾸준히 쌓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전문성을 키우려면 한 분야에서 꾸준히 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면 결국 주변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서 리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터득한 조직 운영의 방식도 인상적이다. 김 동창은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조직을 이끌 수 없다고 말한다. “전문성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조직을 움직일 수 없어요. 저도 팀원들과 함께 밥도 자주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어요(웃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 퇴직 후의 삶, 또 다른 리듬을 찾다

퇴직 이후 김 동창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24년 6월에 퇴직을 했으니 벌써 ‘백수 생활’ 2년차네요(웃음). 퇴직하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허리 통증으로 입원도 했었고, 이석증과 어깨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처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화실에 나가서 그림도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음악 밴드를 조직해서 기타도 치면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마약을 분석하던 법과학자가 이제는 전자기타를 치고 그림을 그린다니! 신선한 반전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유쾌한 인생 2막도 드물 것 같다. “밴드는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연실의 〈목로주점〉,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크라이넛의 〈밤이 깊었네〉 세 곡이나 익혔어요. 며칠 후에 평창의 봉평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여고 동창이 정년퇴임을 해요. 우리 밴드가 퇴임 축하공연 하러 갑니다.” 밴드 이야기가 나오자 김 동창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한편, 2016년부터 해오고 있는 그림 작업은 김 동창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 일이 범죄, 객관적 증거, 논리적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어느 순간 문득 ‘이러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의 감성을 되찾고 싶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림 그리기는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쌓아온 작업을 모아 내년 봄쯤 전시회로 선보일 계획이다.

■ 선택이 아닌 ‘맡기는 삶’을 꿈꾸며

퇴직 후에도 법과학과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에서 마약 분석과 법과학에 관한 특강을 몇 차례 했어요.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올가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법독성학회(TIAFT)에 참가해 최근 마약의 국제 동향도 살펴보고 올 계획입니다.” 김 동창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한다. “흔히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의 선택을 받아보고 싶어요. 언제 어디든 제가 필요해서 부르는 곳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선택하기보다는 맡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글·이미란(행정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패션에서 식탁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디자인하다



경기도 포천 43번 국도 옆 한적한 정원, 은은한 허브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텃밭에서 막따온 민트와 채소가 바구니에 수북이 담긴다. 잠시 뒤 이 싱싱한 재료들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한 폭의 그림 같은 식사가 되고, 그 식탁을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진다. 이곳은 ‘딜리셔스 가든(Delicious Garden)’. 이 아름다운 공간의 주인은 이귀연(의직 85) 동창이다.

패션을 전공하고 대학 강단에서 20년을 보낸 그가 지금은 흙을 만지고 음식을 만들며 사람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뜻 파격적인 변신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패션과 음식은 결국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뿌리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익숙한 성공의 가도를 뒤로하고 50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낸 이귀연 동창의 여정은, 인생의 후반전 역시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디자인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이정표와 같다.

미식의 DNA와 이화에서의 ‘자유로운 영혼’

이귀연 동창의 남다른 감각은 어린 시절의 특별한 환경에서 싹틔었다. 미 8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당시 한국에서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다양한 서구 식재료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던 기억, 아버지가 가져온 이국적인 향신료의 냄새는 훗날 이 동창이 ‘음식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사실 시작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원하던 대학과 전공의 문턱에서 쓴맛을 보기도 했고, 중동 출장길에 오른 아버지의 2년 동안 실종으로 진학과 취업 사이 방향을 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화 교정은 그의 진로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딛고 선 공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입학했을 때는 학교 생활에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미팅을 100번은 했나 봐요. 마치 도장 깨기처럼 했으니, 성적은 엉망이었죠. 1학기 성적표를 받고 실망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잊

을 수가 없네요. 비록 원하는 전공도 대학도 아니었지만 성적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는 없었죠. 그때부터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여름방학부터 도서관을 오가며 4학년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죠.”

2학년 1학기, 이 동창은 또 한 번 비상의 날개를 달았다. 개봉동까지 그림을 배우러 다니며 실력을 갈고닦던 중, 제1회 대한민국 섬유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림만 배운 상태에서 냈는데 덜컥 붙었다”고 회상하는 그 순간부터 학교생활은 즐거움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패션 전공자답게 화려한 스타일로 캠퍼스를 누비던 이 동창은 학회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당시 정의숙 총장 공관에 초대되어 격려받을 만큼 개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화의 대표적인 인재였다. 졸업 후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한 이 동창. 선배들로부터 시간강사 제안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화에서의 시간은, 그가 세상에 나가 자신의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단한 자양분이 되었다.

강단에서의 20년, 그리고 내린 결단

대학원을 마친 후 이 동창은 약 20년 동안 모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패션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 복식미학부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까지, 그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열정적인 스승이었다. 특히 세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졸업 패션쇼’ 수업은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진 프로젝트였다. 제자들과 밤을 지새우며 무대 구성을 고민하고 의상을 점검하는 과정은 그에게도 큰 보람이었다. 한 주에 19시간에 달하는 강의를 소화하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을 향한 애정 덕분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패션 업계의 현실은 그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 주었다. 실력이 뛰어난 제자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 전공과 무관한 일을 찾거나 ‘피팅 모델’ 공고를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며, 강단에서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 점차 무겁게 다가왔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했다. 결국 이 동창은 전임강사의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20년의 강의 생활을 마무리했다. 자신만의 삶을 새로 디자인하기 위한 용기 있는 퇴장이었다.

두 번째 천직, 식탁 위의 예술

새로운 도전은 ‘전시기획’ 공부에서 시작되었다. 자녀가 유학을 떠나며 찾아온 ‘빈 등지 증후군’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공부였지

이 동창의 요리에 격찬을 보낸 아르헨티나 카테나 와인너리의 5대손인 미구엘 토레스 회장과 함께



만, 홍익대학교 전시기획 과정을 수료하며 미학적 깊이를 더했다. 미학적 관점을 패션에서 공간과 문화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운명적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일신홀 개관 기념 음악회의 오프닝 케이터링을 맡게 되었어요. 요리 전공자도 아닌 저에게 200명 규모의 파티를 맡기는 것에 우려의 시선도 많았죠. 예술적 제안을 내밀었어요. 첼리스트 양성원 씨를 위해 테이블 전체를 첼로 모양으로 제작하고, 그 위에 핑거푸드를 예술적으로 배치했어요.” 이 동창의 연출은 대성공이었다. 대사관 관계자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런 케이터링은 처음 본다”며 찬사를 보냈고, 이것이 그의 인생 2막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전, 그는 피자의 본고장 나폴리로 떠나 직접 맛을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까다로운 입맛 때문인지 편식을 했던 약점은 오히려 절대 미각의 강점을 만들어냈고, 실력 있는 셰프들의 음식 맛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맛을 찾았다. 이 동창 요리의 맛은 멋을 겸비하고 있어 품미가 더해졌다. 상차림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화에서 패션을 배우고 가르친 경험을 고스란히 식탁으로 가져갔다.

2012년 무렵,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부딪혀서 해내고 마는’ 특유의 에너지가 발동됐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20평 남짓한 공간에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문을 열기도 전부터 입소문이 났다. 독특한 주방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오가는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특

히 정리되지 않은 공사장에 매일 꽃을 사다 꽃아두는 그의 남다른 감각은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문을 열기도 전부터 예약이 꽉 차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곧 법조계와 기업 인사들이 즐잇는 단골집이 되었다.

이후 서래마을에서 100평 규모의 레스토랑으로 확장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짓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지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다시 본질을 고민했다.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경영자보다 사람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정성 어린 한 끼를 대접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어진 것이었다. 결국 12년의 레스토랑 운영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 자연으로 향했다.

포천 ‘딜리셔스 가든’, 자연이 주는 최고의 디자인

경기도 포천의 1,000평 대지를 3막 무대로 삼았다. ‘일상의 즐거움’ 상호를 ‘The Aesthetic Movement

요리는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자연의 신선함을 시각적·미각적으로 재해석하는 고도의 디자인 작업이자 예술이다



Kitchen'으로 전환했다. 이름부터 심상찮았다. 미학을 주방으로 가져온다는 발상, 맛의 근원을 땅의 기운에서 가져오겠다는 남다른 선언이었다.

“타사의 정원처럼 저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랜 꿈이기도 했어요.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따서 먹을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신선한 재료를 식탁에 올리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서울 토박이로 자란 이 동창에게 농사일은 쉽지 않았다. 남편의 도움이 컸다.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남편(김종호 전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대표, 현 S&P코리아 회장)은 주말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정원을 가꾸었다. 남편 역시 초보였지만 기업을 경영하듯 농장을 관리했다. 어떤 날은 고구마 순에 지지대를 세우려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며 자연이 가르쳐주는 속도를 배웠다.

현재의 '딜리셔스 가든'은 민트, 로즈마리, 사과, 복숭아, 식용 꽃 등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보물창고다. 그는 이곳에서 '밭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의 가치를 실천한다. 봄이면 텃밭에서 직접 캔 쪽으로 디저트를 만들고, 정원에서 바로 딴 토마토와 허브로 샐러드를 내놓는다.

특히 케이터링 행사에서 토마토 덩굴을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 연출하거나, 들꽃을 꺾어 접시를 장식하는 등 그의 패션 전공자다운 미적 감각은 식탁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자연의 신선함을 시각적·미각적으로 재해석하는 고도의 디자인 작업이자 예술이다.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탐구하는 용기

이귀연 동창의 삶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에스프레소의 매력에 빠져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사찰 음식을 공부하며 생명 존중의 미학을 식탁에 담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부딪혀보고 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는 자신을 '자유 영혼'이라 부르며, 돈이나 명예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

50대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 60대의 이 동창을 이토록 빛나게 할 줄은 그 자신도 미처 몰랐다. 남편의 든든한 지지와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는 딸의 존재는 그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다. 패션에서 음식으로, 강단에서 정원으로 이어진 그의 여정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탐구하는 용기'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한다. 서랍 속에 꿈을 고이 접어 넣어둔 이들에게.

“인생은 언제든 다시 디자인할 수 있어. 망설이지 말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해 봐. 너의 정원에도 곧 아름다운 꽃이 필 거야.”

글·최정은(커미부 89, 홍보부장)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영국 박은경 동창

25년 만에 가진 안식월



약 4개월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안식월을 한국에서 마친 후 남편 박계원 선교사는 영국으로 돌아가 다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기도 제목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와 단체들, 목사님, 성도님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달을 머물렀던 상암동 매봉산 산자락 안식관에서 가을과 겨울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초, 저희는 아주 뜻깊은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본을 다녀오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도쿄에 머물기로 한 주간에 일본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대인 (여행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요한 안식일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40대 정도의 일본 선교사 부부와 부모님의 헌신된 사역은 저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포였던 이분들은 믿는 유대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아들이 유대인 아내를 만나게 되며 유대인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감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금요일 안식일 저녁 식사에 50여 명의 유대인, 일본인, 한국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토요일에는 믿는 유대인들과 일본 성도들

과 함께 메시아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들은 제대 후 세계 각지를 장기간 여행하는 문화가 있는데 많은 유대인이 일본(2년간 2,000명 이상 다녀감), 대만, 홍콩,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도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리라 예정하였던 것과 다르게 저는 부모님의 필요를 돕기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안식월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 처소를 자녀들과 가까운 서울로 옮기고자 계획하고 3월 안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의 필요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맡겨 드립니다.

첫째 아들 기연이는 씩씩하게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세연이는 한국에서 어학당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올해 3월에 한국 대학에 입학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 편지를 읽으시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만에 가진 안식월 통해 후원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제함
2. 건강과 관련해 여러 진단과 치료를 받음
3.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사역을 보게 하심

글·박은경(유교 95)



기·도·해·주·세·요

1. 연로한 부모님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소서.
2. 현재 섬기는 브릿지 교회 리더십을 잘 이양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3. 더욱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동창회 소식

1

2026년 첫 정기임원회 열려, 합창 페스티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고받아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임원 29명이 참석(위임 13명, 불참 2명)한 가운데 2026년 2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2025년 추경 예산안,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의 및 질문이 없어 ‘가’로 통과되었다.

이어 2026년 사업계획안 중 ‘이화인의 밤’ 개최 장소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강당 4명, 호텔 19명으로 ‘이화인의 밤’은 11월 30일(월) 저녁 6시에 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한편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대해 “정원이 250명인데 접수가 빨리 마감되어 참가 기회를 놓쳤다는 젊은 동창들이 많은데 참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이은영(컴공 85) 인공지능대학 회장), “단과대학 회장뿐만 아니라 각 과회장에게도

공지를 보내서 더 빨리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하자”(최경임(물리 85) 자연대 회장)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은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으나 현재로서는 야외 행사를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참가 인원을 최대 25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디자인대학원에는 작가로 활동하는 동창들이 있으니 동창들의 작품을 총동창회 기념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작품의 금액 상한선이나 비율을 정해주면 학생 및 동창들에게 홍보하여 제작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를 통해 젊은 동창들이 총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임영미(디대원 15) 디대원 회장)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동창의 날 기념식 전일 열릴 합창 페스티벌(5월 28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합창 페스티벌에서 추첨으로 세 팀을 정하기보다는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140주년 ‘동창의 날’ 행사에 좀 더 실력 있는 팀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고,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팀들이 다음 날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한다”(이승은(동양 89) 조형대 회장), “요즘 합창은 순위보다 즐기는 분위기로 가는 추세고 순위를 정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축제처럼 즐기는 방향으로 하자”(정현주(경영 85) 경영대 부회장), “순위를 매기지 않더라도 심사

2월 정기임원회



직위	이름	학과, 졸업년도	직위	이름	학과, 졸업년도	직위	이름	학과, 졸업년도
고문	이경숙	영문 70	문화부장	이경희	약학 88	체육대학회장	김양례	체육 91
	김영주	유교 71	사업부장	이수은	한음 02	사범대학회장	윤금진	영교 80
	남상택	물리 74	재정부장	김구슬	법대·법전문 93	법대·법전문회장	노정희	법대·법전문 86
회장	이명경	무용 77	음악부장	문주원	피아노 88	경영대학회장	구미리	경영 85
부회장	한은주	특교 79	홍보부장	최정은	커미부 89	의과대학회장	피상순	의학 84
	곽은아	한음 85	회우부장	강승애	체육 95	간호대학회장	정승은	간호 86
감사	이정화	독문 74	지역부장	배지현	기독교 00	약학대학 회장	허은경	제약 87
	정은실	경영 88	선교부장	조선영	영문 74	생활환경대학회장	박경임	식영 73
총무	김경령	수학 84	정보통신부장	시정희	컴공 95	국제학부 회장	이동은	국제학부 05
서기	황인희	사교 83	인문대학회장	정경숙	영문 79	대학원회장	박영미	대학원 00
	백기엽	특교 00	사회대학회장	임복희	행정 93	교육대학원회장	양수화	교대원 74
회계	김성희	경제 00	자연대학회장	최경임	물리 85	디자인대학원회장	임영미	디대원 15
	이여훈	경영 05	공과대학회장	이효수	환경공학 98	사회복지대학원회장	남영안	사복대학원 21
			인공지능대학회장	이은영	컴공 85	정책과학대학원회장	김순옥	정책대학원 19
			음악대학회장	정소희	작곡 89	신학대학원회장	최영신	신학대학원 12
			조형대학회장	이승은	동양 89			

제19대 총동창회 임원 명단 (2026년 3월 17일 현재)

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행사를 빛나게 할 것”(허은경 (제약 87) 약대 회장), “순위를 정한다면 합창단도, 지휘자도 부담이 되고 과열될까 봐 염려된다”(최경임 자연대 회장)는 이야기가 오갔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추첨으로 세 팀을 선정한 것은 지난 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했던 것이고, 국내외 지회에 공문을 이미 보냈다”고 알린 뒤 “당일 대학교회에 대관 신청을 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을 허가받았고, 오전에 각 팀들이 연습한 후에 본 공연은 애찬 후 오후 2시에 시작하여 4시경에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문주원(피아노 88) 음악부장은 “음악대학의 두 개 합창단 중 하나인 이화음악인협회(EMA)는 지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5월 합창제에 지휘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신난식 (성악 73) 이올연합회 회장은 이화 동창이라면 75세 까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합창단 ‘이화 시니어 그라피아 앙상블’이 신설되었다고 안내하고 참여를 원할 경우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2 —————

신입 동창들 대상 기념품 전달

총동창회는 2026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30분 부터 3시 30분까지 대강당 아래 광장에서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총동창회가 마련한 기념품을 받은 신입 동창들

신입 동창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졸업생 선물 배부처' 안내 현수막을 내건 노란 천막을 설치하고, 총동창회 안내와 졸업을 축하하는 카드를 동봉한 동창수첩 1,100여 부를 신입 동창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 김경령(수학 84) 총무, 백기엽(특교 00) 서기, 배지현(기독 00) 지역부장, 이수은(한음 02) 사업부장이 참여한 이 행사는 신입 동창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사회 진출을 격려하며 훈훈한 선후배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총동창회에서는 2025년부터 동창입회비를 납부한 신입 동창에게 '동창입회비 납부 감사선물 패키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동창회 사무국을 방문한 신입 동창(선착순 100명)에게는 이화캘린더, 이화팁블러, 동창수첩과 감사카드로



총동창회는 '동창입회비 납부 감사 선물 패키지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증정하고 있다.

3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계획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참석 32명, 위임 8명, 불참 4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3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자의 추천이 마감되어 현재 10명의 훌륭한 동창이 추천되었다고 알리며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을 선출할 것을 요청했다. 후보자는 인문대 1명, 조형대 3명, 사범대 2명, 법대 1명, 의대 1명, 약대 1명, 생활환경대 1명이 추천이 되어, 해당되는 단과대학을 제외하고 임복희(행정 93) 사회대 회장과 최경임 자연대 회장, 정승은(간호 86) 간호대 회장이 추천받아 선출되었다. 이와 함께 고문 1명, 총동창회장, 부회장, 총무, 문화부장, 홍보부장이 후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를 거쳐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모교 신동희 교무처장이 참석해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식의 개요와 식순을 안내하였고 천미현 학생처 부처장이 참석해 '이화, 함께 걷다' 행사를 홍보하며 총동창회의 동참을 부탁했다. '이화, 함께 걷다'는 4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내 및 학교 밖 스크랜튼길을 걷는 행사로, 교직원, 학생, 동창, 이화부속기관, 학교 인근 주민 및 상인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이대남성교수중창단

의 공연과 이수매니지먼트의 김밥 쿠폰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당일 다리아 송(송지혜·섬예 09) 동창이 디자인한 키비주얼을 담은 티셔츠를 만들어 단체로 착용할 계획이라며 동창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곽은아(한음 85) 부회장은 당초 교내만 걸으려다가 인근 주민과 함께 축제로 하자는 취지로 학교 밖 걷기가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학교 밖 코스에서 교통 통제시에 주변 상인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KBS 《열린음악회》를 5월 12일(화) 저녁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녹화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동창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글·이영희(사학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부 소식 —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은 겨울 수련회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가 2026년 1월 20일(화)에 다락방 1층 애찬실에서 희망찬 인사와 활기찬 웃음소리로 시작되었다. 매해 1월에는 선교부원들이 날마다 이화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 제목들을 올리며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다. 총동창회 선교부의 1년 행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모든 부원들이 날마다 기도에 헌신해 온 것이다. 그러한 기도에 응답으로 주님께서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주셨다.

박지선(심리 88) 동창의 사회로 시작하여 왕승희(피아노 73) 선교사의 인도로 은혜 충만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렸다. 성혜옥(영문 70)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대표기도와 3년 전부터 특송으로 섬겨 주신 하사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아름답고 힘 있는 찬양이 마치 천상의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찬양 이후 장윤재 교목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교목님께서서는 이사야 43:18~20 말씀을 통해 ‘보

라, 내가 새 일을’이라는 주제로, 새해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원 창조, 계속되는 창조, 새 창조의 세 가지 창조가 있다. 창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지금도 완성을 향해 나간다고 하셨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으로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새로 워질 것이 없어”라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이고 두 번째 “이미 늦었어”라는 것은 최악의 불신앙적인 생각이다. 교목님의 설교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바로잡아 주셨다.

헌금 찬양과 안영주(유교 89) 동창의 헌금 기도에 이어 조선영(영문 74)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요한복음 17장, 미가 6:6~8, 아모스 3:3 말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비워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 점심식은 선교부원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즐거운 애찬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에서 파라과이의 정 현 선교사가 여전히

식인종들이 있는 선교지에서의 헌신적인 선교 간증을 감동적으로 나누어 주셨고,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이 '이화와 나'에서 이화 140년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명쾌하게 알려 주셨고, 또한 아름다운 수화로 찬양을 보여 주셔서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순서로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대 학생 문화회관 부스 전도에 참여하는 부원들을 위해 전도폭발훈련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 훈련을 받고 싱가포르에서 전도 실습을 한 김민경(사복 00) 동창이 강사를 맡아 애써 주었다.

겨울 수련회 회고를 하며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는 모습이 떠올라 잠시 미소를 짓게 되었다. 내년



장윤재 교목의 말씀

에도 새해 첫 달에 있을 겨울 수련회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글·민성희(불문 85, 불문과 선교부장)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행사

이화 창립 140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행사에 동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화 있음에 우리가 있네”



1. 감사찬양예배

5월 11일(월) 오후 2시 모교 대학교회

주제 :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0-11)

1부 예배: 찬양과 말씀
2부 예배: 중보기도와 간증

2. 합창 페스티벌

5월 28일(목) 오후 2시 모교 대학교회

올해는 신청한 단과대학(원)과 국내외
지회 합창단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합창 페스티벌'이라는 신나는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합창 페스티벌' 직후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세 팀의 합창단이
'동창의 날' 당일 행사에서 합창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동창의 날 행사

5월 29일(금) 오후 2시 모교 대강당

1부 기념식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 졸업 50주년·졸업 30주년 동창 재상봉 행사
2부 영원한 이화인·올해의 이화인 추대
3부 합창제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 02-3277-3386~7)

모교소식

1

창립 140주년 맞아 ‘새 시대, 새 이화’ 향한 도약 시동

모교는 올해 창립 140주년을 이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원년으로 삼고, 미래를 향한 방향성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립 14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 ▲기념행사 ▲홍보 ▲모금·건축 ▲기록·편찬 ▲공연 ▲전시 등 총 7개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념 웹사이트(<https://140.ewha.ac.kr>)를 오픈하여,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비전 아래 140년의 역사적 성과와 향후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기념사업과 기념행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화 구성원의 참여를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창립 기념일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에는 학술 행사, 전시회, 공연 등 이화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140주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념 프로

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창립 140주년을 상징하는 공식 엠블럼을 새롭게 개발해 공개했다. 창립 140주년 기념 엠블럼은 1886년 이화여대 창립 이래 140년간 이어져 온 혁신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1886년부터 이어진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시간의 연속성으로 담아내어, 이화여대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지향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교는 ‘새 시대, 새 이화’를 향한 힘찬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1월 15일(목)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140주년을 기념해 1,400억 원 모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발족식은 창립 140주년을 계기로 이화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발족식에 앞서 이미 창립 140주년의 의미에 공감한 동창과 기업, 이화의 비전에 뜻을 함께하는 일반 후원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600여 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확보하여 기부 문화 확산의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이화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는 후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숙 총장은 창립 140주년을 맞아 “140년 이

창립 140주년 엠블럼



화의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모든 이화인이 함께 통합의 지혜와 도약의 의지를 모으는 미래지향적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이어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으로 ‘새 시대, 새 이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IMMS 개소식

2 국가연구소 2.0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 출범

모교는 1월 22일(목)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하 IMMS) 개소식’을 개최하고 미래 전략기술을 선도해 갈 국가연구소(NRL 2.0) 출범을 알렸다.

IM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지원하는 ‘2025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로, 화학·물리·신소재·인공지능 등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초경계적 융합 연구를 통해 원자·분자 수준의 소재 설계부터 나노·마이크로 구조 및 시스템 구현에 이르는 멀티스케일 통합 연구·기술 개발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IMMS는 향후 10년간 연간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 규모의 블록펀딩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실험·이론·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연구를 결합해 차세대 에너지 소재, 기능성 신물질, 지능형 시스템 등 국가첨단전략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항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연구소 선정과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의 출범은 과

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이화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이화는 IMM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연구소로서 에너지·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리 IMMS 연구소장은 ‘One Platform, Infinite Impact’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물질 및 시스템 분야 세계 선도 연구성과 창출 ▲초경계적 소재 공정 난제 연구 플랫폼 구축 ▲글로벌 과학 인력 양성 파이프라인 가동이라는 3대 목표를 소개했다. 특히 AI 기반 정밀 소재 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에너지 및 첨단 반도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소재 시스템 기술 통합혁신 K-HUB’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실험실 구축 계획을 공유했다.

3 ‘CES 2026’를 빛낸 이화의 AI 기반 혁신 기술

모교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에 처

음으로 참가해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1월 6일(화)부터 9일(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항숙 총장과 조월림 산학협력단장, 김상준 창업지원단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통합관내 이화여대 전용 부스를 찾아 전시 중인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며 대학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전시에서 모교 창업기업들은 AI, 헬스케어, 보안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학생창업기업인 (주)이디엠가젯과 (주)유니유니, 교원창업기업인 (주)코어트러스트링크(이화기술지주 자회사)가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였다.

특히 학생 창업기업인 (주)유니유니(대표 한수연)는 장애인 화장실 낙상·실신 감지 솔루션 '썬비(SAAVY)'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스마트 커뮤니티 부문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는 등 CES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이디엠가젯(대표 김효민)은 AI 기반 데이터센터 전력 최적화 솔루션 'DC-XAI'를 공개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저감 기술로 주목을 받았으며, (주)코어트러스트링크(대표 채상미 교수)는 AI 기반 내부통제 자동화 기술을 선보이며 기업 보안관리 영역의 글로벌 수요를 확인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2월 총장 취임 전 기업가센터장, 기술지주주식회사 대표이사, 산학협력단장 등 이화의 산학활동 전반을 총괄하며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이끌었던 이항숙 총장의 경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총장이 직접 CES 현장을 찾아 학생·교원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접점을 확장한 것

은, 이화의 창업·산학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맞물려 모교 창업지원단은 창업기업의 부스 참가비, 홍보, 바이어 매칭 등 CES 참가의 전 과정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CES 서포터즈' 학생 2명을 선발해 부스별 1:1로 매칭, 전시 운영 및 바이어 응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거쳐 현지에서 IR 피칭과 실무 협상 등 실질적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다.

이항숙 총장은 "CES 2026 첫 참가를 통해 이화의 학생·교원 창업기업이 보유한 AI 기반 혁신 기술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 같이 참여한 조월림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CES 2026 첫 진출을 계기로 이화 창업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세계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여성 창업가 중심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CES 현장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가한 이화인 스타트업들을 격려한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애플·스탠포드 연구소(SRI)·스탠포드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원(HAI) 관계자들과 글로벌

CES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한 이항숙 총장



별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

사범대학,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6회 연속 전주기 A등급 획득

모교 사범대학(학장 박은혜)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모교 사범대학은 1주기(1998~2002년), 2주기(2003~2009년), 3주기(2010~2014년), 4주기(2015~2017년), 5주기(2018~2021년)에 이어 이번 6주기(2022~2024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도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5월부터 사범대학이 설치된 전국의 교원양성기관(45개교)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했으며, 모교 사범대학은 A등급을 받았다.

모교의 교원교육 역사는 1915년 유치원 사범과를 효시로 시작되어 100여 년이 넘는 전통과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1951년 국내 최초의 사립 사범대학으로 설립된 모교 사범대학은 유·초·중등·특수교육 분야의 모든 전공을 갖춘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3만 1,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한국 교원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모교 사범대학은 2024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이 주관하는 교원양성대학 개선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I·디지털 교육역량강화,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 학부·교육 대학원 연계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모교는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AI·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과 개별화 학습 설계, 글로벌 교육 협력을 아우르는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국내 최초·최고·최대의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5

약학대학, 약학교육 1주기 평가· 인증 '5년 인증' 획득

약학대학(학장 이화정)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5년도 약학교육 1주기 평가·인증에서 최고 수준인 '5년 인증'을 획득하였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사법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약학교육의 질과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교육부 지정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평가를 진행한다. 2025년부터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예정)자에게만 부여된다. 이번 평가는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지속적 개선 등 8개 영역, 50개 필수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통해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모교 약학대학은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 실무

역량 중심 교육체계, 우수한 교원 및 교육 인프라, 지속적 교육 질 관리 개선 체계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5년 인증을 획득하였다. 약학교육 평가인 증서 수여식은 2월 27일(금)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화정 약학대학장은 “약학대학은 국가가 인정한 약학교육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 약학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혁신과 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식

-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10시
-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이화인, 이화학술상 시상 등



KBS 열린음악회

-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촬영
5월 31일(일) 방영
-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 음악을 통한 이화 공동체의 화합과 연대



백남준 특별 전시회

- 일시: 2026년 5월 12일(화)~16일(토)
- 장소: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캠퍼스 곳곳
- 백남준아트센터와 협업



이화, 함께 걷다

-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11시
- 장소: 이화여대 캠퍼스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연대감 강화



창립 140주년 기념 전시회

- 일시: 2026년 5월~12월
- 장소: 이화여대 박물관
- 유물과 기록으로 이화의 140년 재구성



창립 140주년 기념 '이화가족 찾기'

- 일시: 2026년 3월~6월
- 기준:
 - (1) 대를 이어 이화(최다 세대 가족 찾기)
- 많은 수의 직계가 이화인으로 이어진 가족(3대 이상 직계 가족)
 - (2) 우리집은 이화(최대 인원 가족 찾기)
- 많은 수의 친족(직계·방계)이 이화인으로 이어진 가족(4촌 이내 친족)

창립 140주년 기념 「이화 글로벌 홈커밍」

-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2026년 5월 27일(수)~5월 29일(금)
- 대상: 해외 거주 중인 동창
- 의료원 및 이화캠퍼스 투어, 교내 행사 관람 등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전화: 02-3277-2926)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_임복희(행정 93)

학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1월 12일(월) 저녁 6시, 연세동문로 18 소재 로프트에서 사회과학대학 차은영(경제 85) 학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김수영(심리학과) 교수 및 경제학과장 박민정(경제 02) 교수, 사회학과장 최셋별(사회 93) 교수, 커미부 학부장 안순태(법학 90) 교수와 각 과 회장들인 임복희(행정 93)·김희정(정외 88)·장지숙(문정 89)·권미경(커미부 88)·엄명숙(사회 83)·라현정(심리 91) 동

차은영 학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과학대학 동창들



창과 심리학과 신입 동창회장인 홍승렬(심리 92) 동창, 최진경(경제 91) 회장 위임으로 참석한 박순영(경제 91) 동창 총 13명이 참석하였다.

차은영 학장의 주재하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사회과학대학 발전을 위한 모교와 동창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사회과학대학 동창회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음악대학

회장__정소희(작곡 89)

EMA Choral Society 제2회 정기연주회

‘하늘과 땅을 잇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한 EMA Choral Society 제2회 정기연주회가 1월 31일(토) 서울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이화음악인협회(Ewha Musicians Association, 이하 EMA) 주최로 열렸다. 지휘 최희복(성악 85) 동창, 반주 우승지(피아노 20) 동창과 함께 23명의 단원들이 오르반의 〈Mass No. 6〉을 시작으로 바흐의 모테트 〈BWV 230 & 225〉, 이어서 마드리갈 곡들과 엘가의 〈2 Parts Songs Op. 26〉 등을 연주하였다.

EMA Choral Society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공연 중인 음악대학 동창들



학 동창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 합창단으로,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 문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경영대학

회장_구미리(85)

제9대·10대 이경희 회장단 이·취임

2월 26일(목) 모교 진선미관 1층 회의실에서 제9대·10대 이경희(이화여대 경영대학 동창회) 회장단 업무 인수인계 및 이·취임식이 있었다. 제9대 임원진 김지훈(회장, 90)·이연주(부회장, 90)·유정민(총무, 97)·정혜선(운영위원, 89) 동창과 제10대 임원진 구미리(회장)·정현주(수석부회장, 85)·김선혁(총무, 98) 동창이 참석하였다.

인사를 나누는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였으며, 동창회 운영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누었다. 업무와 관련한 모든 실물 서류와 파일, 직인을 전달·인수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동창회를 대표하여 현 회장이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참석자 전원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에 대해 동창회원이 모여 있는 SNS 대화방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정민·김선혁·정혜선·이연주·정현주·구미리·김지훈 동창



에 공유하면서, 모교와 경영대의 성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제10대 신임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을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과대학

회장_피상순(의학 84)

학술 심포지엄 및 송년회 행사 치리

2025년 12월 6일(토)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가졌다.

2026년 1월 15일(목)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가졌으며, 1월 30일(금)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신현자(의학 70) 동창을 초대하여 '아름다운 동행' 시간을 함께하였다. 신현자 동창은 직장을 다니면서 40여 년을 요셉의원에서 봉사하였으며, 1남 1녀를 잘 키웠다. 신현자 동창의 딸 육심원(동양 96) 작가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월 10일(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화의대동창회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3일(월) 이대서울병원 3층 계림홀에서 이화 의대 졸업식을 가졌다. 총 7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학술 심포지엄 및 송년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간호대학

회장_ 정승은(간호 86)

신년 모임과 간호메달 수여식

1월 13일(화) 오후 12시 여의도 진진수리에서 제9회 간호대학 동창회 신년 모임이 개최되었다. 신년 모임에는 명예교수, 역대 동창회장, 간호대학 학장 및 교수,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그리고 동창회 임원을 포함하여 총 23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정승은(86) 동창회장, 강윤희(94) 학장, 이대목동병원 김숙현(90) 간호부원장, 이대서울병원 구종모(91) 간호부원장의 신년 인사 후 간호대학의 발전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2월 20일(금) 오후 3시 간호 메달 수여식이 이삼봉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 메달 수여식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간호 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하며 간호사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자리다. 간호사로 첫발을 내딛는 제67회 졸업생 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99) 부학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박효정(97) 학장의 인사말, 정승은(86) 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학사 보고, 간호 메달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동창회장상 시상 등으로 이어졌다.

신년 모임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모든 신입 동창들에게는 선배 동창들이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며 간호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회장_ 허은경(제약 87)

신년 하례회 갖고 덕담을 나뉜다

1월 20일(화) 리버사이드 호텔 루비홀에서 신년 하례회 행사를 가졌다. 신년 하례회는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고 격년으로 치르는 동창회 행사로 이날은 고문, 자문, 상임위원, 임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김수경(약학 84)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임원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아곰의 축복> 특송을 하여 신년 하례회의 분위기를 밝혔다.

이날 이화정(제약 90) 학장은 인사말에서 본인이 55대 대한약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또 이화여대가 올해 설립 14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과 약대 80주년 책자를 발간할 것이라고 학교 소식을 전했다. 또 행사를 위해 이지원(소프라노)·이승희(베이스) 성악가를 초청해 아름다운 가곡을 듣는 공연 시간을 가져 동창들에게 큰 호응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을 받았다.

오찬 후에는 동창들이 덕담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 _ 박경임(식영 73)

임원 신년회 겸 정기회의 갖고 행사 논의

1월 28일(수) 아령회 임원 신년회 겸 1월 정기회의를 쿠출로에서 가졌다. 박경임 아령회장, 우미형(의직 77, 전 아령회장) 고문, 김상희(가관 81, 전 아령회장) 고문, 이정순(식영 73) 상임위원, 이향진(가관 87, 가정관리학과 회장) 부회장, 김수연(식영 90, 식품영양학과 회장) 부회장, 김호연(식영 88)



정기회의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총무, 서희성(식영 91) 재무회계, 이선효(식영 90) 기획운영부장, 김혜련(가관 91) 언론홍보문서영상 기록부, 김관지(식영 93) 부총무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아령회 결산보고, 2025년 아령회 활동보고, 식품영양학과 활동보고, 가정관리학과 활동보고, 총동창회 소식, 2026년도 행사 관련 논의를 하였다.



과(학부)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 _ 지선영(84)

신년 임원회의 열고 한 해의 준비

1월 23일(금) 사당역 올리브에비뉴에서 신년 임원

회의를 갖고, 2025년 전체 행사를 돌아보고 2026년 행사 일정을 꾸려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임원 10명이 참여하여, 작년 행사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3월 예정의 정기총회 준비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었다. 2026년 한 해도 국문과 동창회를 위해 모두 함께 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임원회의를 마무리했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2월 7일(토) 모교 ECC B4에 위치한 식당 닥터 로빈에서 중어중문학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동창회장으로 이승신 동창을 선출·인준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다수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회칙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임 회장이 공식 확정되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동창회를 이끌어 온 전임 송진영(90) 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동창회는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재임 기간 동안 동창 화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참석한 동창들 또한 따뜻한 박수로 그간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

신임 이승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 간 소통과 화합을 더욱 강화하고, 동창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동창들은 새로운 회장단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뜻을 다졌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중어중문학과 동창들



이화영문100주년기념 합창단 창단

2025년 10월 17일(금)에 이화영문100주년기념 합창단이 창단되어 12월 23일(화)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아트홀에서 창단 첫 공연을 가졌다. 장희영(기독 00) 원목이 인도하는 성탄 축하 예배에서 합창단은 최문영(83) 동창의 지휘와 신영(87) 동창의 반주로 <Amazing Grace>와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을 불러 축하찬양을 올렸다. 공연은 병원의 의료진, 직원, 환아와 보호자, 환자들이 함께 하여 치유받고 희망을 갖는 성탄 무대가 되었다.

성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이화의료원 대외협력부의 안내로 이대서울병원 투어를 가졌다. 1887년 10월 31일에 정동에서 시작된 보구녀관(普求女館)이 병원 내에 복원되어 있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가 7대 병원장으로 취임된 사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원내 전시된 ‘히포크라테스 선서’, ‘플라뇌르 루브르 시리즈 3’ 등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이대엄마아기병원 등을 투어했다. 현재 공사 중인 웰 에이징 센터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여성들의 건강생활 및 의료계획을 동반 수행해 주기에 최적화된 곳이었다.

성탄 예배가 열렸던 우복희아트홀 천장이 바로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방주교회였다. 교회 안에 들어서자 절망의 세상에서 방주에 올라탄 듯한 구원감이 실려왔다. 여느 교회 제단 앞에 높이 달린 십자가와 달리 낮게 바닥에 붙은 십자가는 천창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켜지는 구조였는데 휠체어를 탄 환자들까지도 빛의 십자가에 다가와 벽을 짚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대서울병원 방주교회를 찾은 영어영문학과 동창들

한편 지하 로비에는 동대문 역사라운지가 있어서 작은 박물관 역할을 하였다.

2026년 2월 21일(토) 압구정동 한일관에서 영학회 신년 인사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전임 회장인 영학회 고문들, 이화영문100주년기념 합창단 단장인 최문영(83) 동창, 이은혜(83) 목사, 황수경(99) 영어영문학부장과 새로 취임한 안소미(06) 교수가 영학회 임원진과 함께 참석하였다.

강명옥(82) 부회장이 자리를 정돈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이은혜 목사가 영문과 동창들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에 감사하는 기도로 모임을 열었다. 정경숙(79) 33대 회장이 영문과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33대 영학회 활동을 회억하면서 34대 영학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영문과에서 정경숙 동창이 인문대학 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소감을 나누었다.

이어 강명옥 부회장이 34대 영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역대 영학회를 잘 계승하고 향후 100년을 향하여 발전시키겠노라는 포부를 밝혔다.

박민선(01) 회계가 작년도 회계 현황을 자료와 함께 발표했다. 양옥경(82) 이화영문 100주년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발족된 미래위원회 상황과 활동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위원회의 임원소개 및 작년도 영문인의 밤에 지원했던 멘토링 토크

쇼에 대해 전해주었다. 황수경 학부장도 전언하듯이 10개 분야 선배들의 화려한 라인업에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10분만에 번개같이 끝냈다고 한다. 올해부터 미래위는 상반기엔 동창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하반기에는 재학생 혹은 사회초년 졸업생들의 멘토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대영문100주년기념 합창단의 최문영 단장이 합창단 현황을 발표했다. 총 52명의 동창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은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성탄예배에서 첫 공연을 마쳤고 영문과 행사에 찬조 출연을 할 계획이다. 이명실(78) 선교위원장은 선교회 활동에 대해 보고하면서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황수경 학부장이 100주년 기금의 모금 액수, 사용 내역, 잔존 기금 액수 등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영학회의 운영 상황과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고영자(63) 고문의 건배사로 동창들은 새해 덕담과 세찬을 나누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동창들은 오늘도 이대 영문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갔다.

독어독문학과

회장_박지나(90)

송년회 통해 친목 다져

2025년 12월 18일(목) 강남 노보텔에서 독어독문학과 송년회가 있었다. 연말을 맞아 동창회원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되돌아보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고참 선배부터 올해 동창회에 입회한 새내기 동창들까지 모여 여러 프로그램으로 단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송년회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사회학과

회장_ 엄명숙(83)

선후배가 함께 느낀 희망의 새해!

1월 15일(목), 엄명숙 신임 회장과 강혜영(84) 부회장의 주도 아래, 신년 기 대표 모임이 열렸다. 팔순의 대선배부터 32기(1993년 졸업) 후배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세대를 아우르는 돈독한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새해 덕담과 함께 하필연(71) 동창이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로 훈훈함이 더해졌고,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을 담아낸 박춘호(70) 동창의 에세이집 『동네지킴이』를 소개하는 시간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선배의 고결한 삶을 배우고 후배의 열정을 응원하는 이 따뜻한 교류야말로 우리 사회학과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기 대표 모임에 참석한 사회학과 동창들



물리학과

회장_ 김수미(90)

풍성한 송년의 밤을 보낸 동창들

2025년 12월 4일(목)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물리학과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다. 눈이 수북이 쌓이는 곳은 날씨에도 60여 명의 선후배, 동창들이 함께 모여 정겨운 안부를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늦은 시간까지 동창들이 모여 노래와 게임을 포함한 행사를 함께 즐겼고, 많은 동창들이 경품을 기부해 주어 송년의 밤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다. 내년 송년회에서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25년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였다.

올해는 8기 김경자(68) 동창과 26기 이희숙(86) 동창이 장학금을 기부해 주어 김채연(22학번)·백가영(24학번) 재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생명과학과

회장_ 황유경(89)

22기 월간 모임 개최

생명과학과 22기 이생회에서는 2월 2일(월) 기모임을 개최하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생명과학과 22기는 1976년 졸업한 동창들의 모임으로, 매



기 모임 후 식사 및 차를 함께하는 생명과학과 22기 동창들



동창 모임에 참석한 사이버보안학과 동창들

달 첫째 월요일에 정기 모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졸업 5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5월 동창의 날 참석을 위한 '영원한 이화인'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모처럼 즐거운 행사를 준비하며 답소를 즐겼다.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사회와 소통하며 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여전히 이화의 선배로서의 삶에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사이버보안학과

회장__김연희(21)

첫 동창 모임으로 뜻깊은 시간

2025년 12월 5일(금) 사이버보안학과 첫 동창 모임이 열렸다. 생각보다 많은 동창이 참석했고,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자리에서 학과를 매개로 이어진 동창 간 유대가 한층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26년 2월 20일(금) 사이버보안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의가 김연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줌(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회장 단 활동 보고, 동창회보 발간 경과, 회비 운영 내

역, 주소록 정비 등 각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으며, 2025년도 회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감사 절차를 통해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어 동창회보 발간 주기 조정, 복지사업 점검, 학과 설립 10주년 기념 장학금 모금, 졸업생 취업 현황 조사, 정기 모임 일정 등 동창회 운영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올해는 학과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양학과

회장__황정아(93)

제42회 채연전 개최

동양학과 동문전인 채연전 'Timeline-시간의

정기 모임에 참석한 동양학과 동창들



결'이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15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42회를 맞은 이번 전시에는 총 88명의 동창이 참여해 '시간의 결'이라는 주제 아래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황정아(93)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지연(93)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원문자(66) 명예교수의 격려사가 더해졌다. 한편 제42회 채연전 시상에서는 김현경(97) 동창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년 2월 25일(수) 낮 12시, 하누소 인사동점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황정아 신임 회장을 비롯해 김지연 명예 회장, 구미경(94) 부회장, 정선희(93) 감사, 조소은(94) 총무, 임 울(17) 총무, 설진화(대학원 15) 간사 그리고 이은지(13) 간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총동창회 행사 소식과 향후 동창회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정아 회장은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양화과

회장__안혜리(91)

2026년도 이사회 회장단 회의

2월 3일(화)에 이사회 회장단 회의가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이사회 회장을 역임한 천연순(62)·곽연(67)·이서희(68)·강승애(72)·박운주(76)·조기련(83)·조은정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들

(85)·송은주(86) 동창과 안혜리 현 회장, 정선주(94) 총무를 포함해 총 10인이 참여하였다.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함께한 후에 안 회장 주관으로 2025년도 이사회 활동보고를 하였고, 정선주 총무이사가 2025년도 회계 보고를 하였으며, 천연순 전임 회장이 회계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였다.

조소과

회장__김 연(91)

정기총회로 결속을 다져

재학생 및 동창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ESAarts Award의 일환으로, 1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코엑스(COEX) C홀에서 열린 <2026 ISF 국제조각페스타>에 '이화조각회 장학사업' 부스를 마련해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이번 전시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수연(98)·이말용(98)·손혜경(03)·조재영(03)·김다슬(15)·김보경(19) 동창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조소과 동창 작가들의 뛰어난 역량을 선보였다.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우리 본점에서 이화조소과 제1차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참석자: 이정자(66), 심부섭(76), 고혜숙(77), 임영란(78), 김종희(79), 최은경(79), 이선화(81), 오주연(90), 김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연(91), 이윤정(91), 김양선(94)) 이번 회의에서는 3월 개최 예정인 '제41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2027 ESAarts Award 및 2027 ISF 국제조각페스타에서 이화부스 참여 여부, 이화조각회 신입회원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입 회원으로는 이희경(96)·김영서(25) 동창이 입회하였다.

같은 날 정오, 한우리 본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운영위원과 임원진 및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감사·회무·결산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2026 ESAarts Award×2026 국제조각페스타> 참여 작가들의 소감 발표와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또한 2026년 조소과 동창회 및 이화조각회 사업 계획안 공유와 함께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결속을 다졌다. 총회 후 오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한 이번 총회는 조소과 동창들이 지난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 이정자(66), 심부섭(76), 고혜숙(77), 임영란(78), 김영란(79), 김종희(79), 최은경(79), 이선화(81), 이연경(81), 김영숙(82), 김형주(84), 이정미(85), 최승애(85), 강승주(87), 정미숙(87), 호혜란(88), 오주연(90), 김연(91), 이윤정(91), 이은이(92), 김양선(94), 이말용(98), 신은주(99), 신동희(00), 신혜진(00), 윤수진(01), 김순임(02), 최요중(05), 이수원(12), 김보경(19))

섬유예술과

회장__ 이상영(94)

예미 회장단 워크숍

예미 회장단 워크숍이 1월 18일(일)부터 19일(월)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섬유예술과 동창회(예미회)의 2026년 제10회 동문전을 앞두고 전시 준비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섬유예술과 동창들의 롤모델이자 대모인 이효범(61) 동창의 미수(米壽)를 기념하는 깜짝 축하 행사가 마련되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이효범 동창은 놀라움과 함께 큰 기쁨과 감동을 표현했고, 이어진 즉석 축하 공연 속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워크숍은 회장단의 식지 않는 열정과 예미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는 회장단이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예미회와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석자: 이효범(61), 탁지숙(64), 오복환(66), 이상복(67), 장영란(77), 박정례(79), 이상미(88), 전영선(88), 이상영(94))

1월 26일(월) 안다즈 치즈룸에서 예미회 임원 회의가 있었다. 2025년 예미회 활동을 정리하고,

예미 총회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2026년 연간 계획과 예미 총회에 대한 준비 작업에 대해 회의하였다. 젊은 동창들의 동창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임원으로 김누리(08)·이세정(13) 동창을 영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미회 활동이 더 활발하기를 기대한다.(참석자: 이상영(94), 이해원(96), 신지혜(02), 김누리(08), 이세정(13))

2월 20일(금) 모교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섬유예술과 예미 총회가 '예미의 봄, 예미 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1964년 졸업 동창부터 2026년 졸업 예정 동창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동창들이 함께해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드레스 코드는 희망과 새 출발을 상징하는 초록이었으며, 포토존과 럭키드로우 행사로 웃음과 추억을 더했다. 역대 회장들도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참석해 후배들에게 든든한 응원과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회장단은 임원진을 격려하며 동창회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예미 파티는 동창 간 초록빛 에너지를 나누며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도예과

회장 _ 김지혜(91)

공예 트렌드 페어 기획투어 실시

2025년 12월 13일(토) 코엑스에서 열린 '공예 트렌드 페어 기획투어'에 참여하였다. 이번 투어는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김예성(02) 동창의 전문적인 해설이 곁들여져 전시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페어에 참여한 도예과 동창들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작품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등 동창 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6년 2월 25일(수) 모교 동창회관(이화·삼성 교육문화관)에서 '2026 도림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새롭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2명의 신입 회원을 포함하여 총 70명의 동창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퇴임한 김옥조(생미 66)·유혜자(생미 67)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제자들과 따뜻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총회는 제25대 임원진 소개와 함께 동창들의 주요 전시 및 행사 소식을 공유하며 진행되었다. 동창들이 직접 준비한 기부 물품과 협찬품으로 진행된 풍성한 경품 증정식은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도예과 동창들

무용과

회장 _ 권금희(86)

송년의 밤- '빛나는 이화, 동행의 밤' 개최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5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2층 남산홀에서 무용과 동창회 송년행사인 '2025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동창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동창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해온 '송년의 밤'은 2025년 '빛나는 이화, 동행의 밤'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에는 연간 활동 보고와 시상식, 후원금 전달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무용과 동창들

식에 이어 무용과 대학원 재학생 3인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2부 '어울림의 시간'에는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베스트 드레서 선발과 시상, 경품 추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송년의 밤에는 지난 6년간의 임기를 마친 한명옥(79) 무용과 동창회장의 이임식과 권금희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권금희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이날 행사에는 무용과 1기 졸업생(1967년 졸업)부터 59기 졸업생(2024년 졸업)까지 1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학과

회장_김미영(89)

동창·재학생·교수진이 함께한 연대의 자리

교육학과가 학과 설립 80주년을 맞아 2025년 10월 31일(금)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은혜(특교 88) 사범대학장을 비롯해 전·현직 교수, 교육학과 동창, 재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교육학과의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최윤정(03) 교육학과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김미영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이항숙 총장, 박은혜 사범대학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신태섭 교수는 '교육학과의 발자취와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교육학과의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학과 동창들과 전·현직 교수들의 뜻을 모아 총 1억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모교에 전달되었다.

또한 교육학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위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공로상은 안인희(49) 이대 명예교수와 김은산(59) 홍대 명예교수가 수상했으며, '자랑스러운 이화교육인상'은 김수연(88, 영산대학교 부총장) 동창, 이병미(89, 와세다국제기독교대학교) 동창, 윤정원(91, innoFTT Partners 대표) 동창, 박은실(92, YWCA 사무총장) 동창, 윤소희(12, IBK기업은행 과장) 동창에게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나의 이화일기'를 주제로 교육학과에서의 추억과 삶 속에서 이어진 교육의 가치를 나누었다.

2부 친교 시간에는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경품 행사 등이 이어졌으며, 학생회가 준비한 과방 사진전과 포토존을 통해 동창과 재학생이 세대를 넘어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행사 진행에도 동창과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1945년 한림원의 교육과로 출발한 교육학과는 지난 80년 동안 한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동창들은 교육 연구기관, 학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교육학과 동창들



교 교육, 대학, 기업 교육,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80주년 기념행사는 교육학과와 전통과 성취를 되새기고, 동창 공동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교육학과는 앞으로도 'AI 시대, 인간 중심 교육학의 리더'를 양성하며 이화 교육학의 가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아교육과

회장_ 황혜현(90)

신년 하례식과 정기총회를 진행

1월 12일(월)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신년 하례식과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퇴직 은사님과 선후배 동창들 간에 새해 인사를 나누고, 동창회 소식 및 유아교육학과, 부속유치원 소식을 들었으며, 졸업 10·20·30주년 동창 축하와 신입 동창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제17대 동창회 회계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제18대 동창회장 선거에서 황혜현 동창이 연임으로 선출되었다. 3부는 식사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단체사진을 남기면서 마무리하였다.

신년 하례식과 정기총회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유아교육과 동창회



특수교육과

회장_ 최은주(89)

특교인의 밤 행사 진행

2월 5일(목) 17시 30분 모교 교육관 김애마홀에서 특교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71학년부터 22학번에 이르기까지 총 65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여러 세대의 특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 1부 정기총회는 개회 선언과 기도로 시작해 2025년의 동창회 주요 활동 보고와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선교부 소식 및 광고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는 신입 동창 소개와 환영사, 답사가 이어지며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나누었다.

3부 친교의 시간에는 대학바둑연맹 부회장이자 한국여성바둑연맹 제29대 회장을 역임한 71학번 박애영(75) 동창의 '나의 바둑 이야기' 강연이 있었다. 강연 이후에는 사진 촬영과 식사,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운 교류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수교육과 동창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교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다지고, 동창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특교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지회소식

뉴욕 지회

회장 __ 류은주(약학 91)

다양한 동아리 활성화로 재능 나누어

1월 7일(수)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실시하여 제 23대 강혜경(영문 83) 이사장과 제37대 류은주 회장 및 신임 회장단이 임기 2년의 동창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1월 24일(토), 1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1950년대부터 2020년대 졸업 동창들이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고 동창회의 비전과 연례행사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각 전공별로 자리를 배치하여 20~30대 동창들의 커리어 멘토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은 “동창회가 한층 젊어지고 활성화되는 것 같아 무척 기쁘다”, “같은 과 선배님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동창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화 동아리’를 창설하였는데 2월 20일(금) 현재 난타, 예술 공부, 골프, 테니스, 역사 공부, 보드게임, 소설 강독, 영상 제작, 음식 문화 연구, 지역 탐방 모임 등 10개의 동아리로 활성화되어 동창들이 재능과 리더십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즐거운 동창회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대구 지회

회장 __ 권애실(불문 82)

동창들의 참여 덕에 화기에애한 송년회

2025년 12월 5일(금) 라온제나 호텔에서 6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송년회에는 그동안 동창회에 참석 안 했던 새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1965년 졸업 동창들의 합창 발표와 몇 개월 동안 모여 연

송년회에 참석한 대구 지회 동창들



습을 한 댄스팀들의 발랄하고 귀여운 무대로 송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2026년 2월 27일(금) 신년교례회에서는 웃음으로 2026년 병오년을 힘차게 출발하였다.

덴버 지회

회장 __ 김진희(건축 06)

백홍자 동창의 전시회 응원

1월 24일(토) 오로라 지역에서 신년 동창 모임을 가졌다. 이어 2월 13일(금)에는 덴버 Santa Fe Street에 위치한 D'art Gallery에서 열린 백홍자(조소 80) 동창의 미술 전시회를 방문해, 작품에 담긴 배경 이야기를 듣는 '작가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덴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화여대의 명성을 빛내고 있는 동창 미술가를 가까이에서 응원할 수 있어, 더욱 자랑스럽고 특별한 자리였다.



백홍자 동창의 미술 전시회에서 이대 동창들과 동창 가족들이 모였다

미네소타 지회

회장 __ 김정은(체육 90)

포틀럭 파티로 연말 모임

2025년 12월 6일(토) 김정은 회장의 집에서 연말



연말 모임에 참석한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총 10명의 동창과 특별 게스트 1명이 참석했으며, 포틀럭(Potluck)으로 준비한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김권식 이사는 이화국제재단 이사이자, 2025년 2월 우리 곁을 떠난 고헌성숙(국문 68) 동창의 부군이다. 김권식 이사는 회의에서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소식, 북미주 총동창회 소식, 그리고 음대 100주년 기념 공연 소식을 전하며 학교와 동창회의 최근 소식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동창회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창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눈 끝에, 2026년부터 연회비를 기존 3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회비 인상 결정은 앞으로 동창회 활동과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음 모임은 잠정적으로 2026년 6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선출도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게임을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게임을 통해 김권식 이사가 준비해 온 이화 기념품을 나누어 가졌고, 이어 각자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나누며 웃음과 정이 가득한 시간을 이어갔

다.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이번 연말 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창 간의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동창회와 이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동창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북가주를 방문한 이향숙 모교 총장과 환영 오찬을 가진 차세대 동창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 박명정(섬예 80)

송년 모임으로 동창 간 단합을 확인

2025년 12월 산호세 한식당 '산장'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 행사는 그동안 지회를 이끌어 온 이영원(정외 81) 회장이 박명정 차기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였다. 사회를 맡은 서인원(수학 89) 차기 부회장이 AI 기술을 활용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시간을 선사하는 등 세대를 아울러 지회의 연속성과 단합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6년 1월 11일(일) 북가주를 방문한 이향숙 모교 총장 및 모교 방문단과 함께 새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인근 레스토랑에서 환영 오찬을 가졌다. 동창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교의 현황과 '140주년 비전'을 듣고, 졸업 60년차 대

송년 모임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선배부터 졸업한 지 10년이 안된 젊은 동창까지 타국에서의 삶과 성취를 나누었다. 특히 수십 년간 모교에 아낌 없는 사랑을 보내온 한 동창은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회고하여 큰 울림을 주었다. 북가주 지회는 모교를 위해 모금한 5,000달러의 기부금을 방문팀에 전달했다. 이향숙 총장은 “동창들의 후원이 학교에 커다란 버팀목임을 실감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다음 날인 12일(월)에는 지회 내 젊은 동창들의 모임인 ‘차세대 모임’ 멤버들이 총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겼다.

북텍사스 지회

회장 _ 김미리(문정 83)

음악과 나눔이 함께한 송년 파티

2025년 12월 6일(토) 저녁 5시 30분에 북텍사스 지회 송년 디너 파티와 작은 음악회가 식당 ‘수라’ 대연회장장에서 개최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본래 자선 음악회로 개최되었으나 이번에는 이화 가족들과 내빈을 위한 작고 친숙한 음악회로 준비했다.

바흐와 헨델, 푸치니, 차이코프스키, 가르델 등의 우리 귀에 익숙한 대가들의 음악이 성악과 피아

노, 현악 트리오로 연주되었으며, 초대 예술가로 테너 Jose Miguel Santelices씨가 이규임(성악 14) 동창과 함께 라보엠의 듀엣을 노래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이화 음악팀의 공연을 들으며 내빈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코르 곡으로 <축배의 노래>가 공연되어 모두 건배하고 음악에 박수를 치며 아름다운 예술의 향연을 즐겼다. 총 90여 명의 내빈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의 음악회가 끝나고 식사를 진행하였다. 식사 후에는 퀴즈와 경품 뽑기를 하여 선물을 나누고, 모두 함께 고기를 제창하며 폐회하였다.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이화 디너 파티는 단순한 친목만이 아니라 음악과 나눔이 함께하는 자리로 이화 동창들의 한 해를 마감하는 행사이다.



송년 디너 파티에 참석한 북텍사스 지회 동창들

시애틀 지회

회장 _ 김희정(영문 83)

함께 웃놀이 하며 새해를 맞이해

2025년 12월 6일(토), 홀리데이인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부부 동반 포함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신입 회원을 환영하는 순서로 시작하여 지난 1년간 동창회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년 모임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김희정 회장은 두 번에 걸친 이화장터 행사에서 모은 5,052달러 수익금이 장학사업을 비롯한 동창회 활동에 쓰였고, 박명호(정외 78) 동창의 재능 기부로 세 차례 음악 강연을 통해 모인 기부금 4,650달러는 Korean Emergency Fund와 First Responders Children's Foundation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애틀 지회가 20여 년간 지원해온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학센터 장학금 수상자로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 Marissa Hauser가 선정되어 수상 소감을 전했고, 지회 소속 합창반 '이화 하모니'의 축가로 송년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특히 시애틀 지회가 이화국제재단을 통해 매년 2,500달러씩 모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재경(과교 80) 이사장의 보고는 참석자들에게 영원한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줬다. 이어서, 맘껏 끼를 발산하는 2부 순서가 마련되어 선후배 간 정이 듬뿍 쌓이고 유대감도 배가 되는 송년 모임 그 자체였다.

2026년 2월 14일(토)에는 김희정 회장의 집에서 36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신년 하례식은 새 임원진 소개, 회계 및 감사 보고, 연간계획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2026년에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 이벤트 및 소그룹별 열린 모임을 통해 젊은 후배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혔다. 점심식사 후 벌어진 웃놀이판은 새해 기분을 한껏 끌어올렸고,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2026년 출발의 닳을 힘차게 올렸다.

시카고 지회

회장 _ 최지숙(무용 83)

2025 송년 파티 성황리 개최

2025년 12월 6일(토) 연말을 맞아 동창과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동창 간 우애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1부는 박영화(커미부 83)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순자(국문 67)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교가 제창과 동창 소식 공유가 이어졌다. 올해는 정조숙

송년 파티에 참석한 시카고 지회 동창들



(생미 66)·전호찬(섬예 72)·최희숙(물리 96) 동창이 새롭게 이사로 위촉됐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신공범(간호 74) 동창 부부가 참석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어 유정희(교육 61) 장학위원장은 2025년도 장학금 및 지역발전기금 수혜자를 발표했다. 장학금은 현재 드폴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은결(관현 20) 동창에게 전달됐으며, 지역발전기금은 시카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KPAC (대표 김병석)에 수여됐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3부 여흥 시간은 심재희(체육 90) 동창의 진행으로 활기를 더했다. 이은결 동창의 연주 영상 상영, KPAC 하청라(한음 18) 동창의 대금 연주, 김경희(피아노 73) 동창의 반주로 꾸며진 사위 합창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노래자랑, 단체 춤, Raffle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시카고 지회는 내년에도 더 많은 동창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창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 차희숙(체육 77)

송년 모임으로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자리

2025년 12월 14일(일) Bears Best Country Club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을 개최하였다. 차희숙 회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김아자(의학 63) 동창의 송년 기도와 이인순(약학 69) 단장의 지휘 아래 교가를 제창하며 뜻깊은 시간을 열



송년 모임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었다. 특히 오은경(심리 54) 동창의 건배 제의로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이어갔다.

만찬 후에는 여주은(독문 92) 동창의 사회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구건희(관현 16) 동창의 첼로와 김태원(피아노 86) 동창의 피아노 앙상블로 <Amazing Grace>를 감동 깊게 감상하였고, 이어진 합창 공연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워싱턴 총회에서 선보였던 탤런트쇼팀 윤혜경(기독교 76) 동창과 팀원들의 공연이 더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게임과 복권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을 나누며 즐거움을 더했고, 마지막에는 이경희(무용 87) 동창의 지도 아래 모두 함께 라인댄스를 추며 유쾌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은 다가오는 총회를 앞두고 동창 간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슬로건을 함께 외치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2026년 1월 11일(일) 한식당 ‘청담’에서 신년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선후배가 참석한 가운데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2026년 한 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였다. 새 동창 원화경(섬예 75)·김소연(장미 96) 동창을 소개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1월 생일을 맞은 동창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날 차희숙 회장의 연임이 인준되었으며, 임원진 또한 연임되어 2026년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서기 및 회계 보고는 동의와 재청을 거쳐 승인되었고, 10월 총회 준비 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지역 후원금을 한인회 패밀리센터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창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송년 모임과 신년 정기총회를 통해 애틀랜타 지회는 2025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결속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워싱턴 D.C. 지회

회장 _ 김 원(영문 83)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친목 도모

2025년 12월 13일(토), 버지니아주 하얏트 리젠시 델레스에서 동창과 이화 사위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총회와 연말 파티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 원 동창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인준됐다. 또한 2025년 10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후원해준 모든 동창들에게 감사의 전

연말 파티에 참석한 워싱턴 D.C. 지회 동창들



하고, 대표로 김귀현(영문 56)·박옥영(교육 61)·홍성자(영문 64)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6년 1월 30일(금) 20여 명의 동창이 함께한 가운데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에서 열린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전시를 함께 관람했다. 참석한 동창들은 이정실(불문 86)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의 해설을 들으며, ‘이건희 컬렉션’ 속 작품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정실 교수는 3월에 ‘한국 현대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동창들에게 보다 심도있게 한국 근현대 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3월 미술사 특강에는 새 동창 환영식과 이사회도 함께 열린다.

한편 워싱턴 D.C. 지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매년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월 21일(토)에는 격월로 열리는 Ewha Knitting Club 모임을 했고, 10여 명이 함께 뜨개질을 하며 근황을 나눴다. Ewha Knitting Club은 2025년 한 해 동안 Calvary Women’s Services 여성 홈리스 쉼터에 동창들이 직접 뜬 모자 약 100개와 함께 동창회 및 이사회 기부금을 전달했다.

워싱턴 D.C. 지회는 5월에는 5K 하이킹과 봄 피크닉을 하고, 8월에는 Backpack Drive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 이정화(응보 94)

2025년 송년모임 및 2026년 정기총회

일리노이 지회는 2025년 12월 5일(금) 한 해를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리노이 지회 동창들

마무리하는 의미로 시카고 웨스트 루프(West Loop) 지역의 풀턴 마켓(Fulton Market)에 위치한 Beatrix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바쁜 연말 일정 속에서도 11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동창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서로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그간의 근황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새해를 맞아 2월 7일(토)에는 이지선(섬예 96) 후원이사 집에서 2026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 17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칵테일 리셉션과 뷔페 식사로 문을 열어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어진 공식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전년도 회의록 승인과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나아갈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는 시카고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Korean National Treasures: 2,000 Years of Art)’ 전시와 관련하여, 동창들이 함께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모든 공식 순서가 끝난 후에는 게임과 경품 추첨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정겨운 담소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백경원(동양 90)

조출하지만 정겨운 모임

2월 26일(목) 새해 첫 동창회를 가졌다. 평소보다 조출한 모임이었지만 오랜만에 선후배가 모여 정겨운 담소와 음식을 나누었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진주 지회

회장 __ 이지은(웅보 89)

송년회 모임과 전시회 관람

2025년 12월 3일(수) 에스코피에 식당에서 2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1부는 장경아(식영 89) 총무의 진행으로 간단한

송년회에 참석한 진주 지회 동창들



게임과 선물 증정이 있었다. 맛있는 식사와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동창들의 마음은 이화의 대강당 앞 계단에 쫓르르 앉아 있었다. 회장의 직권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베스트 드레서 선정할 때는 모두 긴장하며 웃음보까지 터졌다.

2부는 블루갤러리로 장소를 옮겨, 진주에서 활동하는 여류 작가 김선호(서양 75)·염선행(생미 83) 동창의 2인전을 관람했다.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하트를 날리는 진주 지회, 멀리 남쪽지방의 따뜻함이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 __ 김기방(서양 74)

햇불회 예배와 친교의 시간

1월 17일(토) 신임 임원회를 열었다. 임원회에 참석한 동창들은 올해의 행사를 계획하고,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월 21일(토) 최경자(영문 63) 목사를 모시고 올해 첫 햇불회 예배를 보았다. 식사 후 2부 순서로는 김기방 회장의 지도로 그림그리기와 김미진(경영 74) 동창의 지도로 라인댄스 강습이 있었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동창 간에 친목을 다졌다.

동창회 모임으로 친목을 다진 토론토 지회 동창들



프랑스 지회

회장 _ 박경애(영교 76)

2025년 정기총회와 2026년 신년 모임

2025년 12월 6일(토), 파리 삼식 식당에서 동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 오찬을 가졌다. 예년보다 적은 수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부와 근황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2025년도 동창회 활동 및 회계 보고가 있었고, 지난 임기를 마치는 임원단의 인사에 이어 차기 회장과 새 임원단의 소개가 있었다. 신임 회장으로는 박경애 동창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노주희(불문 87)·총무 함미연(불문 81)·회계 김진은(성악 12)·서기 윤소영(불문 14) 동창이 다가오는 2년간 임원단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며, 지난 2년간 재벌 이화인들을 위해 고생한 한연미(정외 90) 회장의 인사로 모임이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다.

2026년 2월 21일(토), 한식당 국립관에서 동창 14명이 참석해 신년 모임을 가졌다. 대선배님들을 포함, 각지에서 모인 동창들이 파리 소재 한식당에서 친목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신규 임원단의 인수인계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신임 회장이 파리 세르누치 박물관에서 2월 3일(화)에서

5월 17일(일)까지 열리는 박인경(동양 49) 동창의 전시회 소식을 전달하였다. 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장옥희(심리 69입) 동창의 집에서 향후 모임을 계획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 이교연(영교 70)

공기 놀이, 제기차기 등 추억의 놀이

2025년 12월 6일(토)은 필라델피아 지회 마지막 정기모임이자 송년회가 열리는 날로 박찬수(간호 75) 동창의 집에서 열렸다. 1부에서 2026년 새 임원으로 이교연 회장의 연임, 회계에 조경숙(의학 81) 동창, 총무에 김윤미(국문 83입) 동창이 작년에 이어 다시 총무로 수고하게 되었다. 2부에서는 오성실(영문 68) 동창 부군의 피아노 연주로 감미로운 선율을 감상하였는데, 그 부군은 50여 년 전에 한국의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한동일 씨의 형님이다. 이어서 김영석 교수가 크리스마스캐롤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강의하였고, 이어서 <White Christmas>를 다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다. 다음 순서로는 동심으로 돌아가 동창들은 제기차기를, 부군들은 공기 놀이를 하였다. 몇 십

송년모임에 참석한 프랑스 지회 동창들



새해 첫 정기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년만에 다시 하게 된 추억과 정감이 어린 한국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마지막으로 카드 게임을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전 일정을 마쳤다.

2026년 2월 14일(토) 똑배기식당에서 열린 첫 정기 모임에서 10명의 회원들은 사진 촬영을 한 후 전원 일치하여 맛있는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끝내고 새 임원진의 소개와 2025년도 회계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광고 시간에는 아펜젤러 장학금, 백낙정 장학금 안내, 올해의 정기 모임의 주제, 또 이사회원들이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의 대상 선정 등을 포함하는 1년 계획안 발표가 있었다. 이어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과 총회 전 2박 3일 일정으로 짜여진 여행지에 대해 발표한 애틀랜타 지회의 소식을 전달하고 이어서 즐거운 퀴즈 풀이와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정기 모임을 마쳤다.

휴스턴 지회

회장 _ 이은경(사교 92)

한인 어르신께 설 음식 대접

2025년 12월 12일(금) 이영일(의직 72) 동창의 집에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송년파티

송년 파티에 참석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한인 노인회 설날 잔치를 개최한 휴스턴 지회

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바비큐를 비롯한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었으며 특히 어린 자녀들도 함께해 한층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유신영(교육 03) 총무의 유쾌한 진행으로 게임도 함께하고 윤이정(성악 12) 동창이 아름다운 성악으로 성탄 노래를 들려 주어서 송년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해주었다.

오랜만에 함께한 동창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따뜻한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026년 2월 13일(금) '휴스턴 한인 노인회 설날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9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동창들은 며칠에 걸쳐 불고기, 소고기볶음, 각종 전과 나물, 잡채, 약식 등 푸짐하고 정성 가득한 명절 음식을 손수 준비해서 대접했다. 그리고 휴스턴에 계신 어르신들께 2026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래(무용 08) 동창이 우아한 전통 무용 공연을 보여 주어서 잔치의 즐거움과 감동을 더했다.

이번 설날 잔치는 참석한 어르신들께 즐거운 명절의 추억을 선물했을 뿐 아니라 정성으로 행사를 준비한 동창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고(故) 이혜숙(문과 43) 동창

모교는 2월 26일(목) 교내 본관에서 ‘고(故) 이혜숙 교수 영어영문학부 100주년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유가족으로부터 1억 원을 기부받았다. 이날 기금전달식에는 고인의 장녀인 정수경(영문 68) 동창과 만며느리 이경구(생명 76) 동창, 차남 정연호 박사와 며느리 김미령(사회 77) 동창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금은 1959년부터 1989년까지 30년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친 고(故) 이혜숙 교수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충선(약학 56) 동창

한아장학재단 이사장 이충선 동창이 ‘약대건축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금은 모교가 미래형 캠퍼스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약학대학 신축, 첨단 교육 환경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충선 동창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약 8억 5,000만 원을 후원하며 이화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충선 동창

김판숙(사복 58) 동창

김판숙 동창이 모교에 ‘김판숙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모교는 2025년 11월 28일(금) 본관 접견실에서 기금전달식을 개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판숙 동창은 2024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한 데 이어 2025년에 1억 원을 추가로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김판숙 동창

김익자(사복 64) 동창

2월 26일(목) 김익자 동창이 사회복지법인 SW복지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김익자 동창은 1987년부터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우보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소외된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번 취임식에서 대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정년퇴임 회원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김익자 동창

고선옥(의직 69) 동창

2025년 12월 18일(목) 고선옥 동창이 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비의료인 위원에서 은퇴하였다. 고선옥 동창은 ‘임상시험 동의서’를 심사하고, 의사들의 암호문 같은 난해한 문장들을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일을 20년간 봉사해 왔다.

안윤정(독문 69) 동창

2025년 12월 23일(화) 앙스모드 대표이사 안윤정 동창이 이화첨단학술정보관 건립을 위한 기금 1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 기금은 이화여대 최초의 도서관이었던 헬렌관을 첨단학술정보관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윤정 동창

모니카 류(전월화, 의학 72) 동창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모니카 류 동창이 한국어 보급 활동의 일환으로 시집 『병원 밖 세상』을 출간했다. 2017년 수필집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이후 두 번째

책이다. 직접 찍은 사진과 시를 결합한 '디카시집(디지털 카메라+시)' 형태이다. 시집에 실린 사진 60장은 지난 6년 간 세계 각국을 오가며 찍은 수십 만 장의 사진 중 선별한 것이다.



모니카 류 동창

임덕기(국문 72) 동창

임덕기 동창의 시집 『봄으로 가는 지도』의 영역본 『A Map to The Spring』이 Codhill Press 뉴욕에서 2024년에 발간되었으며, 수필 선집인 『꽃이 피는 조건』의 영역본 『Homing Instinct』이 2025년에 미국에서 발간되어 아마존과 교보에서 판매 중이다. 임덕기 동창은 현재 국제펜여성작가위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이대동창문인회 감사, 한국시인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덕기 동창

금기숙(의직 74) 동창

2025년 12월 23일(화)부터 2026년 3월 22일(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금기숙 기증특별전'을 가졌다. 금기숙 동창이 박물관에 56점 약 13억 1,000만 원 상당의 작품을 기증하여 이루어진 이 전시는 당초 3월 15일(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호응이 좋아 22일(일)까지 일주일 연장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개회식 피켓 요원의 의상인 '눈꽃요정' 옷은 금기숙 동창의 대표작이다.



금기숙 동창

김태임(의학 74)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제60차 정기총회에서 김태임(제17대 의과대학 동창회장, 동호의원 원장) 동창이 제13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터



김태임 동창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태임 동창은 '백분의 일의 나눔 장학금'을 비롯해 영닥터스 포럼과 해외 의료봉사 활동 등을 통해 동창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순옥(동양 74) 동창

2025년 12월 19일(금)부터 27일(토)까지 인사동 가람화랑에서 '시간의 함축(THE COMPRESSION OF TIME)'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함순옥 동창은 무색의 닥나무 한지를 겹겹이 쌓아 종이의 흔적을 만들고, 오랜 시간 축적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시간의 함축과 변화를 표현하며 깊이 있는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함순옥 동창

서태선(가관 75) 동창

(주)진로발효, (주)제이타워 회장 서태선 동창이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으로 10억을 기부하였다. 기금 전달식은 2월 20일(금) 아령당에서 열렸다. 딸 장진이 알부스 갤러리 대표와 함께 참석한 서태선 동창은 가정관리학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웨스트 캠퍼스가 새롭게 건립되기를 기원하였다.



서태선 동창

양미라(성악 75) 동창

2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모교 음악관에서 제1회 CS Music Korea 컨벤션이 개최되었다. 성악 콩쿨, 마스터 클래스, 개인 레슨과 유학 설명회 등으로 진행된 이번 컨벤션은 CS Music Korea 대표이자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인 양미라 동창이 주관하였다. 모교 성악과 동창회는 음악대학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CS Music Korea 컨벤션을 후원하였다.



양미라 동창

양정수(무용 75) 동창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양정수 동창이 2025년 12월 10일(수)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 '2025 아름다운 무용인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정수 동창은 수원대학교 교수, 대한무용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양정수 밀레 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지난 50여 년간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양정수 동창

이주영(영문 75) 동창

남촌재단 고문 이주영 동창이 모교에 '남촌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남촌재단은 '남촌장학금'을 통해 이화여대를 지속적으로 후원했으며 누적 금액은 16억 원이 넘는다. 모교는 2025년 12월 11일(목) 본관 접견실에서 기금전달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주영 동창

조종남(의학 75) 동창

조운희산부인과 원장 조종남 동창이 장학금 1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모교는 2월 5일(목) 본관에서 '조종남 더리더장학금' 기금전달식을 개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종남 동창은 제16대 이화여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화의료원발전후원회 사회공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하여 약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후원하였다.



조종남 동창

고혜련(국문 76) 동창

고혜련 동창이 <고혜련의 삶이 있는 풍경>이란 제하의 고정 칼럼을 지난해 9월부터 《조선일보》 지면에 연재 중이다. 또한 지난해 말 발간한 인문 여행 서적

인 『고혜련의 지구촌 인문기행 베스트 30』의 영문판인 『Cultural Travel with Teens-30 best in the World』를 오는 5월 중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시판할 예정이다.



고혜련 동창

현정은(사회 76) 동창

현대그룹(회장 현정은) 비영리재단 '임당장학문화재단'이 '이화 새 시대 발전기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025년 12월 4일(목)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현대그룹 회장인 현정은 동창이 딸인 정지이 임당장학문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임당장학문화재단이 이화여대에 후원한 누적 금액은 11억 7,000여 만 원에 달한다. 한편 현정은 동창은 이화 창립 140주년 발전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현정은 동창

이명경(무용 77) 동창

이명경 동창이 '이화 새 시대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명경 동창은 2023년 3월부터 제19대 이화여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27만 동창의 화합을 이끌며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기금전달식은 2월 3일(화) 모교 본관에서 있었다.



이명경 동창

박정선(의학 78) 동창

박정선 동창이 2025년 손소회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박정선 동창은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안전학과 석좌교수이다.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전문의면서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정선 동창은 수필집 『우울할 땐 뭘 하세요』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정선 동창

서영님(무용 78)·고현정(무용 99)·이해니(무용 13) 동창
2025년 12월 19일(금) 열린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주최 제45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상 시상식에서 서영님 동창이 전통부문, 고현정 동창이 무용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해니 동창이 주목할 예술가 상을 수상하였다.

한명옥(무용 79) 동창

1월 16일(금) (사)한국춤협회 2026 정기총회에서 한명옥 동창이 '무용 예술대상'을 수상하였다. 한명옥 동창은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및 상임안무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 드림 무용단 예술감독을 맡아 한국 창작춤과 전통춤 발전 및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명옥 동창

정혜경(식영 80) 동창

호서대 명예교수 정혜경 동창이 최근 한식 인문학 5부작의 마지막 편 『양념의 인문학』(따비)을 출간하였다. 『밥의 인문학』(2015)을 시작으로 '채소', '고기', '바다 음식'을 우리 문화 속에서 짚어온 정혜경 동창의 이번 책은 '한식을 한식답게 하는 것은 양념'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했다.



정혜경 동창

차영순(섬예 80) 동창

차영순 동창이 서울문화재단 공모 사업 '2025년 원로지원작가'에 선정되어, 2025년 12월 3일(수)부터 7일(일)까지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청색 우주(Blue Universe)'전을 개최하였다.



차영순 동창

백혜정(영문 81) 동창

시각예술가 백혜정(Kelly Haejung Paik) 동창이 현

재 시애틀 일대에서 여러 전시를 동시에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Auburn 시 예술위원회 선정으로 1월 15일(목)부터 4월 10일(금)까지 Vault Gallery에서 열리는 초대 개인전 'Contained Radiance(절제된 빛)'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Magnuson Park Gallery, Seattle Convention Center 내 Phyllis Lamphere Gallery, 그리고 Matzke Fine Art Gallery에서도 작품을 나란히 선보이고 있다.



백혜정 동창

임선영(의학 82) 동창

임선영산부인과 원장 임선영 동창이 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5년 12월 1일(월)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으며, 상금 2,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임선영 동창

정혜진(무용 82) 동창

안무가 정혜진 동창이 서울시무용단의 <일무>로 무용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뉴욕 댄스&퍼포먼스 어워드(베시 어워드)'를 수상했다. 정혜진 동창은 한국 국공립 예술단체 작품 최초로 베시 '최우수 안무가·창작자' 부문을 수상했다.



정혜진 동창

엄정순(서양 83) 동창

2월 25일(수)부터 3월 28일(토)까지 서울 소격동 학교재에서 개인전 '보푸라기-촉각적 사건'을 가졌다. 엄정순 동창은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 프로젝트를 이끌어오며 '보는 것'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엄정순 동창은 점자책과 조형 작업 등으로 시각보다는 촉각이 주가 되는 작품들로 '본다'는 행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오연주(유교 83) 동창

오연주 동창이 2월 2일(월) 어린이 집안전공제회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오연주 동창은 대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1년부터 15년간 안양시 가족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 가족 사업을 추진해왔다. 임기는 3년이다.



오연주 동창

강오향(식영 84) 동창

한국도미노피자 고문 강오향 동창이 남편인 오광현 한국도미노피자 회장과 함께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 기금' 1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기금전달식은 3월 20일(목) 모교 본관에서 열렸다.

박미정(조소 84) 동창

환기미술관 관장 박미정 동창이 2월 6일(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028년까지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미정 동창

유경하(의학 84) 동창

2025년 12월 3일(수) 엘리어나호텔 강남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재단 한국 지회 주최로 열린 '테디스 어워즈 2025'에서 '희망과감동상'을 수상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인 유경하 동창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며, 공공의료 강화에 앞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유경하 동창

김지선(서양 86) 동창

2025년 6월 LA K-town 파크뷰갤러리에서 한국 청

소년 발달장애 작가 40인 초대전을 시작으로, 10월 한미 발달장애인 청년작가 초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26년 1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LA Art Show(부스 1018)에 아트월갤러리 대표 겸 대표작가로 참여해 부스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1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Lee & Lee Gallery에서 멘토·멘티 초대전을 열었다. 김지선 동창은 발달장애 청년작가를 후원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선 동창

박영주(생명 86) 동창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플랫폼인 글로벌 비영리 학술단체 DIA의 한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주 동창은 2월 27일(금) 연세대학교 유일한 홀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임상 적용, 안전성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인 'DIA Korea Cell and Gene Therapy Summit'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박영주 동창

원숙연(행정 86)·이영미(특교 02) 동창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원숙연 동창과 언어병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미 동창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



원숙연 동창

이영미 동창

성과 50선'에 선정되었다. 원숙연 동창은 저서 『한국 이민정책 체제에서 새로운 불안정층으로서의 이민자: 정체성, 권리, 거버넌스 탐색』이 우수성과로 선정되었으며, 이영미 동창은 청각장애 영유아와 부모의 실제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면과 비

대면 환경 모두에서 신뢰도 높은 평가가 가능한 연구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정수(사복 87) 동창

삼양식품 부회장 김정수 동창이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41회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업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1987년 제정된 이후 여성 경영자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수 동창은 내수 중심이던 전통 식품 사업 구조를 수출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수 동창

김수영(국문 88) 동창

김수영 동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2월 1일까지 3년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표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김수영 동창은 여성가족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서울 양천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수영 동창

김정선(제약 88) 동창

김정선 동창이 부산디지털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임되었다. 김정선 동창은 2001년 동서대학교에 임용되어 인사평가처장, 대학원장, 총괄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선 동창

박장미(서양 88) 동창

2월 11일(수)부터 23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너트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 '꿈의 마을(Dream



박장미 동창

Village)'을 가졌다. 박장미 동창은 무의식을 탐색하는 회화 과정을 통해 고유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왔다.

서은진(조소 88) 동창

서은진 동창이 1월 5일(월)부터 5일간 열린 LA 아트쇼에서 특별부스 전시 작가로 선정되었다. 서은진 동창은 이번 아트쇼에서 '평온한 숲(Peaceful Forest)'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또한 LA EK ART GALLERY에서 1월 16일(금)부터 25일(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송미숙(사회 88) 동창

송미숙 동창이 32대 뉴저지 한인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송미숙 동창은 2월 11일(수) 미국 뉴저지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송미숙 동창

이상미(섬예 88) 동창

2월 25일(수)부터 3월 2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 경남갤러리에서, 2월 28일(토)부터 3월 8일(일)까지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실로 그리다 & 설치'를 가졌다. 인사아트센터에서는 '붉은 방, 붉은 기둥' 설치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였으며, 금보성아트센터에서는 실로 그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땅' 작품들과 대표작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이상미 동창

한경아(정의 88) 동창

한경아 동창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실장에 임명되었다. 근무는 2월 2일(월)부터 시작하였다. 한경아 동창은 관광 분야 전문가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관광 정책 연계 업무 전반을 이끌어 왔다.



한경아 동창

호혜란(조소 88) 동창

일본 도조회가 주최한 '제71회 도조전(陶彫展)'에서 호혜란 동창의 작품 <Growing House>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전시는 2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도쿄도 미술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 조각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호혜란 동창

손애리(융보 89) 동창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손애리 동창이 대학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손애리 동창은 현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손애리 동창

이화정(제약 90) 동창

모교 약학대학장 이화정 동창이 대한약학회 제55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학회는 임기 개시 1년 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화정 동창

노상혜(유교 91) 동창

2025년 12월 5일(금),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주관한 <서울런 4050 우수사례 공모전, 내인생의 체인지업! 시즌3>에서 '최우수상' (1등,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였고, 12월 22일(월)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상'을 잇달아 수상하였다. 노상혜 동창은 어린이집 원장, 부영그룹 보육지원팀 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로타리백주년기념회에서 운영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상혜 동창

임선지(영문 91) 동창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동창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첫 여성 실장이다. 임선지 동창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고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희정(의학 91) 동창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희정 동창이 제33대 대한감염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년이다. 최희정 동창은 감염병 치료 분야 권위자로,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서울시장 표창장을 받았고, 감염병 감시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도 수상했다.



최희정 동창

허윤희(서양 91) 동창

2025년 11월 4일(화)부터 2026년 2월 22일(일)까지 대구미술관 2,3 전시실과 선큰가든에서 제25회 이인성미술상수상자 '허윤희: 가득 찬 빔(Beams of Emptiness)' 개인전을 갖고 회화, 드로잉 조각 등 240여 점을 선보였다. 이인성미술상은 대구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대구시가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 대구미술관 개인전 개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허윤희 동창

김선희(특교 92) 동창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동창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신입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김선희 동창은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를 지냈으며, 부천상록학교 교감, 도 교육청 장학관, 아름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김주이(경영 92) 동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동창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여성 실장은 행안부 78년 역사상 처음이다. 김주이 동창은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역임하였다.



김주이 동창

박남수(융보 92) 동창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남수 동창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5년 5월부터 5년간이다. RISE는 대학이 지역산업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자체 협력 기반의 핵심 정책 사업이다.



박남수 동창

심정원(사복 92) 동창

심정원 동창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14대와 15대 회장으로 2020년 3월부터 6년간 회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2026년 2월 이임하였다. 심정원 동창은 재임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를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였다.



심정원 동창

이후정(영교 92) 동창

이화의료원 이화의생명연구원 연구부원장 이후정 동창이 2025년 11월 27일(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후정 동창은 “이번 표창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이화의의료원이 의료현장 중심의 기술교류 생태계 구축과 이를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



이후정 동창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지영(체육 93) 동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동창이 1월 19일(월) 한국체육언론인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아티스틱스위밍 1세대 선수 출신인 박지영 동창은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스위밍 국제심판, 아시아수영연맹 기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지영 동창

손미정(무용 93) 동창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주최 ‘제45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무용부문에서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25년 12월 19일(금) 피제이호텔 4층 카라디움에서 개최되었다.



손미정 동창

태혜신(무용 93) 동창

2월 26일(목)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클래식500 B동 3층에서 개최된 ‘한국무용과학회 제27차 정기총회 및 시상식’에서 2025년 한국무용과학회 우수논문상 및 공로패를 수상했다. 태혜신 동창은 논문 ‘물리학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댄스’의 춤 기호와 확장성 연구’로 이 상을 수상했다.



태혜신 동창

김선희(철학 94) 동창

김선희 동창의 저서 『서학』이 한국대학출판협회가 주관한 ‘2025 올해의 우수도서’에서 최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서학』은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근대 동아



김선희 동창

시아에서 이뤄진 서양 지식과 문물, 기술의 번역과 수용 과정을 '서학(西學)'이라는 개념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김선희 동창은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선영(약학 95) 동창

김선영 동창이 바이젬셀 혁신전략본부 사업개발실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선영 동창은 미국 바이오텍 기업에서 신약개발 연구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스탠포드 의과대학 SPARK 중개연구 프로그램 매니저와 일동 제약 글로벌 사업본부 상무를 거쳐 일동USA 지사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여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MBA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한 인재로 평가 받고 있다.

배승진(약학 95) 동창

배승진 동창이 '중견사회약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5년 12월 12일(금) 성균관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약학회 2025 후기 학술대회'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사회약학회는 사회약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연구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배승진 동창

우혜영(무용 95) 동창

우혜영 동창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대구시티발레단이 2025년 12월 14일(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카페 아루스>를 공연하였다. <카페 아루스>는 천재화가 이인성의 삶과 예술에 대한 작품이다.



우혜영 동창

김원미(무용 96) 동창

김원미 이화발레단이 2025년 12월 27일(토) 대구어린이회관 피코리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하였다.

이혜성(식영 96) 동창

모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혜성 동창이 모교에 '이화공대 30+ 미래공학 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금전달식은 3월 5일(목) 모교 본관에서 열렸다. 이 기금은 제3공학관 건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혜성 동창

이혜원(섬예 96)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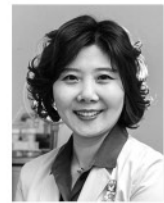
3월 11일(수)부터 16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전(展)'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는 《비즈한국》과 《일요신문》이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시도한 작가 육성 로드맵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망 작가를 발굴·소개하고 있다.



이혜원 동창

정경아(의학 96) 교수

2025년 11월 28일(금)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경아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와 난임 및 가임력보존센터를 동시에 맡아 고난도 부인과 로봇수술과 난임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경아 동창

홍유영(조소 98) 동창

2025년 12월 18일(목)부터 30일(화)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8, 9 전시실에서 제2회 삼보미술상 수상작가전을 개최하였다. '삼보미술상'은 삼보문화재단과 삼보모터스(주)가 후원하여 제정된 상으로 미술 분야의 국내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홍유영 동창

윤진숙(동양 00) 동창

2026년 2월 6일(금)부터 3월 3일(화)까지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라바르-갤러리 뮤즈에서 개인전 '그 사이'를 개최했다. 윤진숙 동창은 풀의 생로병사에서 인간 삶의 순환과 자연의 섭리를 성찰하며 현상의 재현을 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윤진숙 동창

장혜주(영교 01) 동창

장혜주 동창이 HCSC(Health Care Service Cooperation)의 Medical Economics(Medicare) 부문 수석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 선임이 됐다. 장혜주 동창은 CNO Financial Group에서 7년 넘게 경력을 쌓고 2022년부터 HCSC에서 재직 중이다.



장혜주 동창

백연(무용 03) 동창

백연발레프로젝트와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백연 동창이 2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202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작품 <MELTING>을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또한 2025년 12월 19일(금)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주최 '제45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무용부문에서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6년 1월 10일(토)에는 한국춤평론가회 선정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또한 2월 28일(토)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발레연구학회 제29회 한국발레아카데미상'에서는 올해의 예술가 상을 수상했다.



백연 동창

김혜림(장미 04) 동창

2025년 12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런던 67 York

Street Gallery에서 개인전 '겉(GYEOB)'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김혜림 동창은 오방색과 한국 전통 바느질 기법인 '깨끼'를 활용해 다양한 소재를 잇고 겹쳐, 한국적 아름다움과 동서양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혜림 동창

서주희(피아노 05) 동창

서주희 동창이 2025대구청년클래식음악제 'Winter in Paris'의 예술 총감독을 맡았다. 공연은 2025년 12월 18일(목) 한영아트센터에서 있었다.



서주희 동창

윤주연(건축 05) 동창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윤주연 동창이 설계한 '윤중동 국민주택-집 속의 집'이 제2회 성남시 건축상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제2회 성남시 건축상은 '아름다운 주택, 살기 좋은 집'을 주제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일상적 주거 공간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집 속의 집'은 고령의 1인 거주자의 생활 방식과 신체 조건에 맞춘 주거 해법을 제안한 작품이다.



윤주연 동창

정겨운(관현 05) 동창

2025년 12월 13일(토), 14일(일) 양일간 1,400석 좌석이 매진된 Aula Simfonia Jakarta의 Christmas Concert에서 정겨운 동창이 Jakarta Simfonia Orchestra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Op.64)>를 협연했다. 정겨운 동창은 현재 JSO에서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주연(커미부 05) 동창

한주연 동창이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에 임명

되었다. 1938년 개국 이후 80여 년 간 이어진 지역 공영방송 역사상 첫 여성 보도 책임자다. 2005년 KBS 입사 이후 전주방송총국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줄곧 지역 취재 현장을 지킨 한주연 동창은 취재부장(2020~2022)을 거쳐 2022년부터 <생방송 심층토론>을 제작·진행해 왔다.



한주연 동창

김수현(서양 07) 동창

2월 3일(화)부터 15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실험실에서 개인전 '반짝인 건 다 이유가 있어'를 개최하였다. 강렬한 색채와 꽃의 이미지를 통해 정열과 욕망, 순수와 용기를 표현하며 화면에 생명력과 에너지를 담아냈다. 김수현 동창은 회화 작업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김수현 동창

김아람(대학원 07) 동창

김아람 동창은 이대 관현악과 배일환 교수가 이끌고 있는 문화외교 자선단체 뷰티풀 마인드의 인도네시아 지부를 맡고 있다. 뷰티풀마인드는 2월 5일(목)부터 9일(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소외 계층 및 장애인들과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여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지희(동양 07) 동창

김지희 동창이 1월 24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타이완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333 Gallery에서 'Scarlet Bloom'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지희 동창은 '존



김지희 동창

재와 욕망'을 화두로 장지에 채색 기법을 활용한 인물 작업을 이어오며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서정애(사복 07) 동창

서양화가 서정애 동창이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작 <한국 민족의 저력>을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에 기증했다. 서정애 동창은 자연의 생명력과 일상의 평온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50여 년간 유화와 풍경화 중심으로 활동해 온 서양화가다. 1954년 이화여대 입학 후 당시 '금혼학칙'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가, 규정 폐지 후 재입학해 학사모를 쓴 '돌아온 이대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정애 동창

최영은(정책대학원 08) 동창

인하대학교 교수 최영은 동창이 '이화 새 시대 발전기금' 1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모교는 2025년 11월 17일(월)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기금전달식을 열어 감사를 표했다. 이 기부금은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여 AI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캠퍼스 조성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영은 동창

이수연(간호 10) 동창

이수연 동창이 2026년 미국 중서부 간호연구학회(MNRS)에서 '생애 전반 건강증진 행동' 분야의 RIIG(Research Interest and Implementation Group) 초기 경력상을 수상했다. 현재 시카고 로올라 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포닥 펠로우로 근무 중인 이 동창은 이번 수상을 통해 간호학 분야의 떠오르는 연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수연 동창

박지혜(간호 12) 동창

박지혜 동창이 영국계 제약-바이오 회사인 GSK(GlaxoSmithKline)의 호흡기 역학 담당 Director로 승진했다. 박지혜 동창은 2022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GSK에서 재직 중이다.



박지혜 동창

최윤형(장미 20) 동창

최윤형 동창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통해 작품을 선보이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 애니메이션 작품인 〈Resilience(회복)〉는 유튜브 공개 이후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과 서울인디애니페스트에 공식 선정되며, 영화제 상영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안선미(경제 14) 동창

안선미 동창이 일리노이 소재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인 애브비(AbbVie)의 Migraine & Botox, IMCO 부서 재무 담당 매니저로 승진했다. 안선미 동창은 피자헛, 에스티로더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이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



안선미 동창

남 솔(도예 21) 동창

2월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성수 아뜰리에에서 개인전 'Strata of Emotion : Pick Me Apart'를 열었다. 성동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전시는 감정의 충위를 시각화한 'Strata of Emotion' 시리즈를 통해 도자 매체의 물질성과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연결하여 선보였다.



남 솔 동창

이소영(도예 15) 동창

이소영 동창은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후원으로 2025년 12월 4일(목)부터 15일(월)까지 인천문화양조장 1층 우각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끝난 길 만들기(Making the Ended Road)'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스페이스빔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작가의 조형 언어를 통해 심도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소영 동창

고(故) 최숙경(사교 57) 동창

1월 9일(금) 모교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최숙경 동창이 91세로 별세했다. 최숙경 동창은 1960년부터 2006년까지 이화여대 교수로 강단에 서며 한국 여성사 연구의 초석을 닦았다. 특히 1972년 당시 이대 교수였던 하현강 연세대 사학과 교수와 함께 펴낸 『한국여성사』(전 3권)는 해방 이후 최초의 여성 통사로 여성학 연구의 이정표이자 필수 문헌으로 꼽힌다. 1977년 이화여대에 아시아 최초로 여성학 과목이 개설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숙경 동창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문화교육부장관 표창,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고 최숙경 동창

정다희(식영 17) 동창

정다희 동창은 2025년 7월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해서 현재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여 연구 역량을 쌓고 있으며, 오는 2026년 봄부터 메릴랜드 소재 국립암연구소에서 포닥 펠로우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다희 동창

동창이 낸 책 펴새책



그래도 못다한 말

김남순(심리 70)

김남순 지음 / 조선문화사

시인 김남순 동창이 팔순 기념 시집 『그래도 못다한 말』을 출간했다. 김남순 동창은 2015년 『현대수필』로 등단한 중견 수필가이며, 2024년 《조선문학》 신인상에 시가 당선되어 시와 수필의 두 장르를 겸업하는 작가다. 이번 상재한 시집 『그래도 못다한 말』은 등단 후 2년 만에 출간한 것으로, 존재의 탐구를 통한 실존의 확인, 존재의 우연과 필연성의 문제, 그리고 실존의 현존으로서의 탐구 등 현대문학이 추구했던 실존적 존재에의 탐구에서 시를 출발시키고 있다.



동서양 도자와 문화

김명란(도예 75)

김명란 지음 / 수연출판사

김명란 동창이 도자 예술의 역사와 현대적 가치를 조명한 저서 『동서양 도자와 문화』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인류의 삶에 가장 가까운 예술, 바로 '도자'를

통해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단순한 기형과 유약의 변천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시대의 미의식과 기술, 나아가 문화 교류와 권력의 역학 관계까지 촘촘하게 엮는다. 또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한국의 공방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도자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앨리스 R. 아펜젤러 서신 자료집

오정화(영문 76)·김수연(영문 96)

이화역사관 엮음, 오정화·김수연 옮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화학당의 제6대 당장이자 이화여자전문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앨리스 R. 아펜젤러가 남긴 편지 등을 엮은 자료집으로, 이화학당 교사로 부임한 다음 해인 1916년부터 33년간 가족, 지인 및 후원자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서신과 전보, 각종 기록물 가운데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들을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을 통해 여성교육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 평생을 걸고 분투한 아펜젤러 교장의 삶과 공로를 다시금 되새기며, 이화의 지난 역사뿐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과 비전을 품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화역사관은 한국 근대사, 교육사, 여성사에서 큰 공적을 남긴 이화의 스승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한자경(철학 81)

한자경 지음 / 김영사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는 2013년 출간한 『화두』의 개정정보판으로, 7박 8일 동안 체험한 간화선 집중수행의 기록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은 불교의 참선 방법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온 철학자 한자경 동창은 끝내 풀리지 않는 이 물음의 답을 구하기 위해 결국 선방으로 몸을 옮긴다. 수불 스님의 지도하에 두 번의 간화선 집중수행 기간을 갖는다. 이 책은 자신을 '사유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철학자가 어떻게 그 너머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수행의 기록이다. 한자경 동창은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이며 청송학술상, 원효학술상, 반야학술상,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시간을 읽는 그림

김선지(사학 86)

김선지 지음 / 블랙피쉬

'수천 년 세계사를 담은 기록의 그림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시간을 읽는 그림』은 그림을 기록으로서의 미술로 다룬다. 예를 들어 윌리엄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는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모네의 <생 라자르 역> 속 기차역 풍경은 과학 기술 발전이 가져온 여행 시대를 담고 있다. 김선지 동창은 책, 신문, 포스터, 풍자만화 등 당대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시대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미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모교 학부에서 역사를, 동 대학원에서 미술사와 현대미술을 전공한 김선지 동창은 『그림 속 천문학을 떠낸 것을 시작으로』 『싸우는 여성들의 미술사』, 『사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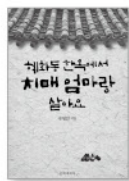
미술관, 「그림 속 별자리 신화」 등 역사와 과학, 예술을 융합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헤화동 한옥에서 치매 엄마랑 살아요

김영연(정외 88)

김영연 지음 / 문학세계사

헤화동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 '유진 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영연 동창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겪게 된 일상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였다. '기억을 잃어 가는 엄마'와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는 딸'의 하루가 한옥의 사계절과 골목의 온기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각 에피소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오는 동시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책에는 실전 노하우 「유진맘의 간병 노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영화가 사랑한 보석

민은미(생미 93)

민은미 지음 / 제인앤제이제이

민은미 동창이 영화 속 보석을 다룬 「그림 속 보석 이야기」 이후 2년 만에 영화 속의 보석 이야기를 출간하였다. 영화 <타이타닉>의 블루 다이아몬드는 주인공 로즈의 사랑과 자유를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선 보석 가게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주인공 홀리가 등장한다.

민은미 동창은 보석을 왜 영화에 차용했는지, 보석이 캐릭터를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영화가 사랑한 보석」에서 37편의 영화와 함께 살펴보았다. 민은미 동창은 가르띠에 코리아, 티파니 코리아, 샤넬 코리아에서 세일즈 매니

저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보석감정사이자 주얼리 칼럼니스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황정민(영문 93)

황정민 지음 / 와이즈베리

아나운서 황정민 동창이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을 출간하였다. 1993년에 KBS에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약 31년간 말을 무기로 살아온 직업인이 전하는 '말 잘하는 비법'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일, 관계,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 디테일'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지만 이 책은 말하기에 관한 이론서나 실용서라기보다 '말 한마디는 힘이 세다'는 걸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마음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에 가정, 직장, 지인 간 행복함 감정을 나누고 확장하고자 황정민 동창은 강조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

염혜진(식영 99)

염혜진 지음 / 더블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노화(Healthy Ageing)'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WHO가 강조한 건강노화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에 있다. 식품영양학 석사이자 현직 약사인 염혜진 동창은 영양제와 약의 한계를 넘어, 우리 몸의 근본을 세우는 '식사'의 힘에 주목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은 칼슘, 비타민D,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의 전략적 섭취법,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주요 질환별 맞춤 식사 실천법, 제철 영양을 가득 담은 계절별 식재료 정보를 담고 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정치합니다

신지혜(사회 11)

신지혜 지음 / 펜타클

신지혜 동창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정치합니다」를 출간하였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인 신지혜 동창은 "열심히 활동하는 원동력이 뭐냐"라는 질문에 "제가 원하는 세상에서 조금 이나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정치합니다"라고 답한다고 한다. 정치인인 동시에 고양이 집사로 살아가는 일상을 담은 에세이이다.



약사's 책상

유선춘(약학 12)

유선춘 지음 / 루즈

「약사's 책상」은 약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브랜딩과 경영의 이야기를 담은 실천형 에세이이다. 유선춘 동창은 「약사's 책상」에서 개국 첫날 갖춰야 할 일반약 리스트 100가지, 첫 개국시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등 개국 준비부터 계약, 마케팅, 고객 관계까지 약국 운영의 전 과정을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 유선춘 동창은 15년 차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며 짬뽕이 개국 자문과 제약사 신제품 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 W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SINCE 1999

에 스 노 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7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래왔듯 한화손보, 최초의 역사를 이어가다

깊이있게 학문을 연구하는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여성의 삶을 연구해 온 한화손보

그 결과, 수많은 최초들을 만들어 왔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집요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여성보험의 또 다른 최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앞선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화여대인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